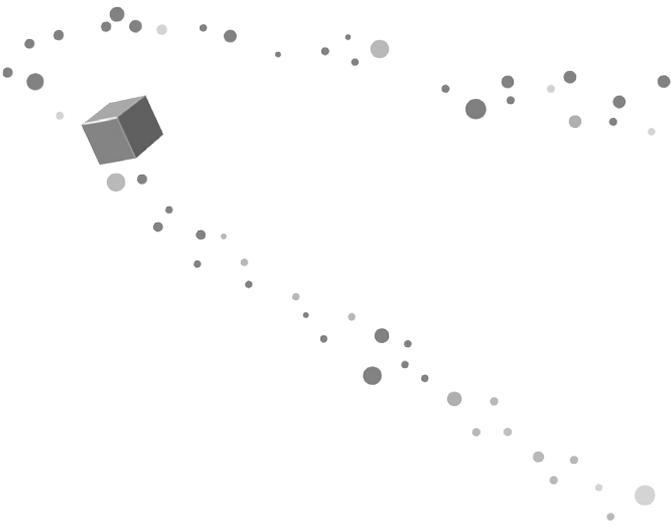




2010. 7

섬유패션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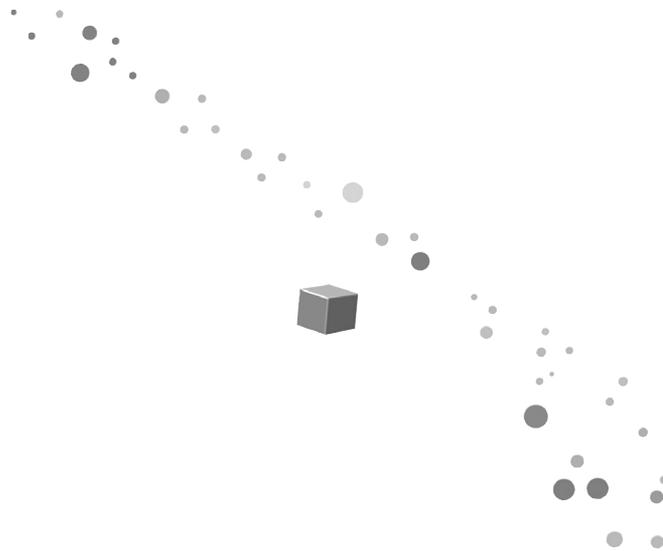
2010. 7
섬유패션산업 동향



우리 연합회에서는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분석을 위해 섬유패션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업종별, 지역별 최신 동향자료를 집필하여, 이를 섬유패션업계, 학계, 단체, 정부, 연구소, 관련기관 등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매월 배포할 예정이며, 자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조사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528-4025 Fax) 02-528-4071 E-mail) jungho@kofoti.or.kr





목차

◆ 2010년 상반기 섬유류 수출입 동향	1
◆ 해외 섬유패션산업 시장동향	4
1. 면방산업 동향	9
2. 화섬산업 동향	12
3. 소모방산업 동향	20
4. 직물산업 동향	22
5. 염색산업 동향	25
6. 의류봉제산업 동향	27
7. 패션산업 동향	31
8. 대구경북 섬유패션산업 동향	35
9. 대구경북 하이테크 섬유산업 동향	39
10. 경기북부 섬유패션산업 동향	43
11. 충남유구 자카드산업 동향	46
12. 전북 섬유패션산업 동향	50

2010년 상반기 섬유류 수출입 동향

□ 2010년 상반기 섬유류 수출은 전년대비 21.4% 증가한 66.0억불, 수입은 전년대비 37.9% 증가한 43.6억불, 무역수지는 22.3억불 흑자 기록

▷ [수출] '09. 11월말부터 시작된 수출증가세가 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10년 상반기 수출금액은 66.0억불을 기록하였음

* 증가율(%): ('10.1)30.9 → ('10.2)15.1 → ('10.3)23.0 → ('10.4)13.3 → ('10.5)27.0 → ('10.6)22.1

- 상반기 수출은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류수출국들의 수출 호조로 인해 원부자재 수요증가와 수출평균단가 상승('09.상반기)4.63\$/kg → ('10.상반기)5.06\$/kg)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함

* 원자재 가격추이

- 원면 국제시세 : ('09.상반기)66 ¢/Lb → ('10.상반기)94 ¢/Lb로 42% 급등
- 화섬원료 : 카프로락탐 ('10.상반기)1,425\$/M/t → ('10.상반기)2,498\$/M/t로 75% 급등하였으며 향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기타 화섬원료 단가도 상승

● (품 목)

① 원료, 사

- 국제유가 상승 및 미국, 중국, 인도 등의 수요증가로 국제시세 급등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증가
- 지역별로는 미국, 중국, 터키, 브라질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수출평균단가

- 섬유원료 : ('09.상반기)1.14\$/kg → ('10.상반기) 1.49\$/kg으로 30.5% 증가
- 섬유 사 : ('09.상반기)3.02\$/kg → ('10.상반기) 3.68\$/kg으로 21.7% 증가

② 식물류

- 최대 수출품목인 편직물(21.2%), 인조장섬유직물(18.2%)의 수출증가로 증가세 유지
- 특히 직물 수출의 경우,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에 의한 소비증가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의류수출국들의 수출 호조에 따른 원부자재 수요확대와 수출평균단가 증가에 힘입어 수출증가

- 또한,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해외 바이어들은 물량확보를 위해 구매량을 늘리고 있음
- 지역별로는 중국, 인도네시아, 홍콩, 일본, 미국, 필리핀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수출평균단가

- 직물류 : ('09.상반기) 7.51\$/kg → ('10.상반기) 7.85\$/kg으로 4.6% 증가
- 편직물 : ('09.상반기) 6.89\$/kg → ('10.상반기) 7.31\$/kg으로 6.0% 증가
- 인조장섬유직물 : ('09.상반기) 9.15\$/kg → ('10.상반기) 9.77\$/kg으로 6.7% 증가
- 면직물 : ('09.상반기) 9.17\$/kg → ('10.상반기) 10.18\$/kg으로 11.1% 증가

③ 제품류

- 편직제(15.6%) 및 직물제(29.5%) 의류 수출은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모자 등 기타 섬유제품(-1.6%)의 수출은 감소
- 의류의 경우, 수출단가(21.1%)와 물량(3.6%) 모두 상승세를 나타냄
- 지역별로는 일본, 중국, 베트남, 사우디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수출평균단가

- 편직제 의류 : ('09.상반기) 14.8\$/kg → ('10.상반기) 17.6\$/kg으로 19.0% 증가
- 직물제 의류 : ('09.상반기) 13.8\$/kg → ('10.상반기) 15.9\$/kg으로 14.8% 증가

- **(국 가)** 상반기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19.7%), 베트남(16.0%), 미국(13.9%), 인도네시아(25.2%), 홍콩(33.9%), 일본(22.9%) 등 주요 수출국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 [수 입] 국내 소비증가로 인한 의류품목의 수입증가와 함께 수출증가에 따른 원부자재 수입증가로 전체수입은 금액기준 37.9% 증가한 43.6억불을 기록함

- **(품 목)** 주요 수입품목인 의류(22.9%), 기타 섬유제품(37.9%), 면사(75.4%), 인조섬유장섬유사(97.0%)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국 가)** 주요 수입국가인 중국(32.9%), 베트남(61.1%), 인도네시아(45.3%), 일본(18.7%) 등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기록

▷ 물량 기준으로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한 130만톤을 기록했으며,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3.9% 증가한 76.7만톤을 기록

< 2010년 상반기 수출입 단가 >

(단위 : \$/Kg)

구분	섬유류		
	2009 상반기	2009 하반기	2010 상반기
수출	4.63	4.82	5.06
수입	5.52	5.72	5.69

< 2010년 상반기 수출입 실적 >

(단위 : 백만불, %)

구분	섬유류		
	2009 상반기	2009 하반기	2010 상반기
수출	5,435 (△19.5)	6,199 (△5.6)	6,597 (21.4)
수입	3,164 (△27.5)	4,243 (△4.4)	4,365 (37.9)
수지	2,271	1,956	2,232

< '09~'10년 월별 섬유류 수출입 실적 >

(단위 : 백만불, %)

구분	'09.8	9	10	11	12	'10.1	2	3	4	5	6
수출	873	1,071	1,011	1,000	1,138	923	880	1,130	1,283	1,157	1,125
	△18.9	△1.9	△15.6	6.1	20.2	30.9	15.1	23.0	13.3	27.0	22.1
수입	684	810	747	638	690	686	649	744	818	725	743
	△18.2	△7.8	△5.7	17.9	25.9	20.2	49.6	31.0	44.2	56.3	32.6

*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KOFOTI), 통계출처 : 한국무역협회(KITA)

해외 섬유패션산업 시장동향

1. 美 바이어, 가격 더 쥐도 중국공장 잡기 힘들어

- KOTRA 미국 뉴욕KBC

- 중국 생산환경 변화로 글로벌 소싱체인의 변화 예고
- 예측하기 힘든 최근의 시장환경, 바이어들의 납품업체 의존도가 높아짐

최근 미국 바이어들이 중국공장의 인력부족으로 제품 공급 및 딜리버리에 차질을 빚음. 중국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인건비를 올려도 오더진행을 안심할 수 없어, 중국 내륙 및 기타 소싱국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됨

□ 시장수요가 살아나도, 제품을 만들 공장을 못찾아

- '10년 세계 경기 회복세와 함께 시장수요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오더가 증가하지만 이미 중국의 의류생산 인력규모는 1/3로 축소되어 오더를 소화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함
-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의류제품 시장수요가 급감하면서 주요 의류 생산국들의 공장도산 및 인원정리 등으로 생산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바 있음
 - 직원 손실규모를 살펴보면, '08년 기준 중국이 1,000만명, 인도가 최대 100만명, 베트남 3만명, 인도네시아 최대 10만명 등의 인력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중국은 전체의 33%에 이르는 대규모 인력이 업계를 떠난 것으로 집계됨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주요 섬유 생산국들의 직원 손실규모(2008년)>

(단위: 억불, 만명)

국가명	전체 의류 수출규모	직원 규모	직원 손실규모(추정)
중국	1,200	3,000	1,000 (33%)
인도	109	3,500	30~100 (0.9~3%)
방글라데시	109	300	0 (0%)
베트남	90*	200	2~3 (1.0~1.5%)
인도네시아	63	100	4.1~10 (4~10%)

* 주 : 베트남 수출규모는 '07년 통계치임

* 자료 : World Bank, Forstarter(2010)

□ 경기회복기, 중국의 인력부족 현상과 인건비 상승문제 대두

- 중국경제의 내수위주 성장패러다임 변화, 고부가가치산업 집중, 타산업으로의 노동인력 이동 등으로 중국 의류 생산규모는 시장수요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중국내 의류 생산이 집중된 연안지역 인력부족 현상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짐
- 중국의 인건비 상승이유
 - 지난 2년 경기침체기로, 생산인력 규모 축소
 - 중국 내수시장의 빠른 회복세로 인플레이션 발생, 일자리 여유
 - 중국 성장중심 산업이 고부가가치로 전환돼 이주 노동자들의 일자리 선호산업 변화 (의류보다 전자제품, 자동차 등 기술산업의 일자리 선호)
 - 중국정부의 내륙지방 경기부양책 실시로 일자리가 풍부해져 이주노동자들은 내륙 고향의 일자리 선호
 - 이에 따라 이주 노동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봉급 상향조정이 불가피
- 미국 바이어들은 올 2월 중국 중추절 이후, 중국 거래공장 직원들이 30~40%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
 - 한 바이어에 따르면, 자사 중국 거래공장의 1,200명 직원 중 600명이 돌아오지 않아 갑자기 무려 50% 인력 손실을 겪으면서 납기 차질 발생
- 나아가 중국 연안 공장들은 더 좋은 가격의 오더를 수주하면 현재 진행중인 오더를 중단해 버리기도 해 바이어들이 제품 공급에 애를 먹음

□ 바이어들 중국 내륙으로 갈까, 다른 아시아로 갈까 고민

- 미국 바이어들의 이중고 : 불확실한 소비수요+생산비용 급증에 따른 불안정한 소싱 환경
 - 미국 소비지출의 약한 회복세로, 제품가격 압박은 여전한 상황
 - 원자재 가격상승과 중국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비용은 증가
 - 생산비용이 증가해도 중국 연안지역 공장을 잡기 힘들고 안심할 수도 없음
 - 따라서 중국 내륙지방 또는 다른 아시아 국가로 소싱을 전환할지 고민
- 바이어들은 이같은 중국 소싱의 문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 중국 내륙 및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으로 글로벌 소싱지 다각화 또는 전환을 이미 추진 중이거나 본격적으로 검토

□ 시사점

- 중국 생산환경 변화로 글로벌 소싱체인 변화 예고
 - 중국 연안을 떠나는 바이어의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글로벌 소싱지 각국 경쟁력이 재평가, 재검토됨
 - 해외 생산을 하는 한국업체들도 자사 소싱지 경쟁력을 재검토할 필요성 대두

- 불확실한 시장환경 속에서 바이어들의 납품업체 의존도가 높아짐
 - 현재 지금 시장이 바이어 마켓이긴 해도 소비수요 및 중국 소싱환경이 매우 불안정해 바이어들은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공급업체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중요성 체감
 - 실력있는 업체에는 오더가 집중되고 거래기회가 더욱 늘어나면서 경기회복 후에도 시장을 선점할 기회도 함께 증가함

2. 美, 중국 떠나는 오더, 아시아 진출 한국업체들 수주 증가

- KOTRA 미국 뉴욕KBC

- 아시아 의류 생산환경 급변해, 소싱국 강점·약점, 임금수준 종합 비교분석
- 새로운 소싱지 찾는 바이어들에게 적극 어필할 시점임

최근 아시아 생산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미국 의류 바이어들의 글로벌 소싱지 검토 및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짐. 이에 따라 아시아 각국에 진출해 생산시설을 운영중인 한국업체들이 중국에서 전환된 오더를 수주하는 새로운 기회를 맞음. KOTRA 뉴욕 KBC는 바이어들이 말하는 최근의 글로벌 소싱환경과 아시아 각국의 강점·약점을 종합 정리해 참고자료가 되도록 함

□ 아시아 생산환경, 왜 변하나

- 중국은 인건비 상승, 생산인력 부족, 산업구조 변화, 내수중심 성장 추진 등으로 생산비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여건은 불안정
- 아시아 각국들도 경제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노동 인건비 변화, 환율변동, 정치·사회적 요인 등이 작용해 상이한 생산환경 형성
- 이러한 가운데 '09년 미국의 중국산 섬유류 쿼터 철폐로 세계 의류생산은 규제의 시대가 끝나고 자유경쟁체제에 돌입

- 바이어들은 쿼터에 따라 소싱지와 업체를 바꾸며 단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던 기존 관행 탈피, 더 좋은 생산가격 및 여건을 찾아 중국 내륙 및 아시아 각국의 생산환경을 전면 검토하며 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공급지 모색중

□ 바이어가 말하는 아시아 각국의 의류 생산여건

- 미국 의류 바이어들이 파악하는 아시아 각국의 의류생산 강점 및 약점에 대한 인터뷰 내용과 World Bank의 시간당 임금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 요약함

< 아시아 의류 생산국의 강점 및 약점, 임금수준 비교 >

국가	강 점	약 점	시간당 임금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 경험 풍부, 생산성 높고 기술 우수한 전문인력 보유 - 미국의 중국산 쿼터 철폐 - 원단 및 의류 다양성, 품질 신뢰 - 테크놀로지 투자(물류 향상) - 'Can Do' 정신과 비즈니스 접근법 - 정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부족 및 유치경쟁 심화 - 인건비 상승, 노동법 강화 - 위엔화 절상 - 인플레이션으로 생산비용 증가 - 에너지 비용, 물류비용 상승 - 제품 안전성 문제 	\$1.88 ~\$1.44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대안지(소싱 및 의류산업 외국인 직접투자 측면) - 원단산업 발달(한국과 대만기업 투자 증가) - 인건비 대비 성실한 인력 - 비교적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 정부 지원 - 동(Dong)화 평가절하 - ASEAN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부족(기술, 패션, 관리 부문) - 원단 및 부자재 수입의존도 여전히 높은 수준 	\$0.38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잡은 대량 생산시설 - 저렴한 인건비, 인력 이직률 낮은편 - 대규모 내수시장 - 원단산업 전통이 길고 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에너지 비용 - 기계 낙후 - 비즈니스 환경(비호의적 관료주의, 세금, 협력문제 등) - 미국 쉬핑을 위해서 싱가포르를 거치므로 베트남 대비 기간 소요 	\$0.44
방글라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비용 낮추기 위해 업계 낮은 수익 감수 - 바이어와의 관계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기술 투자 지속 - 통관절차 및 기간 개선(기존 12~13일 소요 → '09. 3월 이내로 단축) - 낮은 에너지 비용 - 통화인 타카(Taka)화 평가절하로 니트 수출 탄력 - 원단/원사산업 개발(한국과 대만기업 투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부족 - 기술인력 및 중간 관리자 부족 - 노동여건 열악, 파업 가능성 - 에너지 불안정, 전력 부족 빈번 - 비효율적 인프라스트럭처(항구 및 교통시설) - 전문성, 사회적 기준, 접근성 문제 	\$0.31

국가	강점	약점	시간당 임금
인도	- 제품 다양성(남부아시아 국가 최고) - 가격, 융통성, 스피드 - 대량 오더에서부터 소량 맞춤형 오더까지 바이어 요구 수용 - 복잡한 공정의 고급제품 스피디한 가능 - 정부 지원 - 내수시장 성장	- 규모의 경제 부족(직원수 10명 이내 영세업체 80% 차지, 직원수 49명 이상 업체 겨우 6%) - 불안정한 루피화 환율('07/'08년 루피화 절상 후 '09년 달러 대비 루피화 25% 하락) - 원자재가격 인플레이션 - 경쟁국 대비 높은 생산비용(전력, 운영, 거래비용 등)	\$0.51
파키스탄	- 낮은 인건비 - 정부 지원과 외국인 직접투자 인센티브 - 달러 대비 파키스탄 루피화 평가 절하	- 낮은 노동 생산성, 기술 부족 - 에너지 불안정, 접근성 문제 - 국가 안보 불안 - 중간급 퀄리티, 컬러 일관성 부족 - 디자인능력, 글로벌 시장지식 부족	\$0.56

* 주: 임금수준은 '09년 기준임

* 자료: 바이어 인터뷰, World Bank

□ 시사점

-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회복속도가 빠른 아시아 국가들의 생산여건이 급변하여 글로벌 의류 소싱체인이 변화중
 - 아울러 아시아 각국에 대한 투자 및 진출이 활발하여 생산환경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의류 생산부분에서는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
- 중국을 떠나는 오더가 아시아 각국으로 흩어지는 중이며, 현지 진출 한국업체들의 수주가 돋보임
 - '09년 경기침체기 미국의 의류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업체들은 오더 증가 현상
- '10년 아시아 소싱 지형이 새롭게 재편돼 바이어와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 중국 경제성장 및 생산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중국을 떠나는 바이어 더욱 증가 전망
 - 현지 생산중인 한국업체들은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과 함께 새로운 소싱지를 찾는 미국 바이어들에게 적극 어필할 시점
 - 바이어들이 장기 파트너십을 위해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향후 안정적인 오더 확보하게 되는 셈

* 자료 : KOTRA 무역투자정보포털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1 | 면방산업 동향

대한방직협회

1. 생산 현황

- '10. 5월 사류 생산은 20,862M/T으로 전년동월대비 7.9% 증가하였으며, 그 중 순면사는 5.0% 증가
 - 국일방적(주) 31,200추 증설
- 1~5월 누계로는 97,676M/T으로 전년동기대비 9.9% 증가하였음

구분	'10. 5월	전월 및 전년 동월대비		누계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0. 1~4월	증감률(%)
사류(M/T)	20,862	6.9	7.9	97,676	9.9
순면사	13,484	9.0	5.0	62,834	5.2
직물류(천SM)	2,865	△4.0	19.4	13,495	23.7

* 주 : 대한방직협회 회원사 기준

2. 면사 수출입 현황

□ 수출

- '10. 5월 면사 수출물량은 4,001M/T으로 전년동월대비 74.6% 증가하였으며, 1~5월 누계로는 18,513M/T으로 전년동기대비 57.0% 증가하였음
 - 직수출가격 상승에 따라 순면CM사의 미국 및 베트남 등으로의 수출호조로 작년 11월 이후 증가세 지속
 - 1~5월간 물량기준으로 미국 79.4%, 베트남 127.4% 각각 증가

'10. 5월		누계('10. 1~5월)	
물량(M/T)	금액(천\$)	물량(M/T)	금액(천\$)
4,001 (74.6)	16,385 (120.0)	18,513 (57.0)	69,860 (84.3)

* 주 : ()는 전년동월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수입

- '10. 5월 면사 수입물량은 26,044M/T으로 전년동월대비 28.4% 증가하였으며, 1~5월 누계로는 120,017M/T으로 전년동기대비 44.1% 증가
 - 국내 수요증가로 작년 6월 이후 증가세 지속되고 있으나, 금년 5월 들어 증가율 둔화
 - 주수입국인 인도를 비롯하여 순면CM사는 중국, 순면CD사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 급증
 - 1~5월간 물량기준으로 인도 68.0%, 중국 75.4%, 베트남 51.3% 각각 증가

'10. 5월		누계('10. 1~5월)	
물량(M/T)	금액(천\$)	물량(M/T)	금액(천\$)
26,044 (28.4)	90,150 (77.1)	120,017(44.1)	386,263 (85.3)

* 주 : ()는 전년동월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3. 원료 현황

□ 원면(ICAC 2010.7.1. 발표)

- 금년시즌('09/'10)의 세계원면생산(21,964천톤)은 전년시즌대비 6.0% 감소하고 소비(24,492천톤)는 4.4% 증가하여, 소비가 생산을 능가함으로써 기말재고(9,561천톤)는 20.9%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금년시즌의 세계평균 원면가(Cotlook A Index)는 78US¢/Lb(전년시즌 61.2¢ 대비 27.5% 상승), 내년시즌에는 87US¢/Lb를 각각 예상

(단위 : US¢/Lb)

구분	07.6	07.12	08.3	08.6	08.9	08.12	09.3	09.6	09.9	09.12	10.3	10.4	10.5	10.6
Cotlook A Index	64.10	71.60	74.90	80.35	67.80	57.20	53.05	60.85	63.55	78.45	85.25	90.55	90.85	NQ

* 자료 : 매월말 Cotlook Limited 발표 기준(NQ = Not Quoted)

□ Polyester Staple Fiber 가격

- 국제 원유가격 상승에 따라 작년 1/4분기 이후 상승 추세임

(단위 : US¢/Lb)

구분	07.6	07.12	08.3	08.6	08.9	08.12	09.3	09.6	09.9	09.12	10.3	10.4	10.5	10.6
국산(Local)	66.7	72.6	70.3	72.6	68.0	47.6	52.2	58.1	61.2	63.5	64.9	68.0	70.3	68.0
대만	내수	63.5	74.0	76.7	79.9	51.1	52.4	56.8	60.2	64.7	65.2	69.8	69.3	69.2
	수출(FOB)	63.5	68.0	67.1	67.1	63.5	45.4	45.4	54.4	56.7	61.2	63.5	65.8	63.5

* 주 : 1. 국산 로컬가격은 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대만 가격은 'Cotton Limited' 발표 기준임

□ 재생스테인플섬유 가격

-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였으나 작년 2/4분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었음

(단위 : US\$/Kg)

구분	07.6	07.12	08.3	08.6	08.9	08.12	09.3	09.6	09.9	09.12	10.2	10.3	10.4	10.5
일반 레이온(대만) (HSK 5504109000)	2.03	2.92	2.88	2.64	2.40	2.29	1.86	2.05	2.27	2.31	2.53	2.56	2.59	2.63
폴리노직(오스트리아) (HSK 5504102000)	2.59	2.74	2.89	2.88	2.88	2.89	2.89	2.86	2.91	2.82	2.84	3.12	2.96	2.96
리오셀 (HSK 5504902000)	3.45	3.38	3.16	3.22	3.14	3.27	2.95	3.98	2.57	2.91	2.90	3.05	3.07	2.97

* 주 : 해당월의 수입통관 금액을 물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4. 면사 가격

- 국산 로컬가격은 작년 4/4분기 이후 원면가 상승과 함께 중국 및 인도 등의 수요증가로 국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급상승세를 보였으나, 6월하순부터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보합세 유지
- 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CM 30수 기준 국산 로컬가격은 6월말 현재 730~750US\$/공임

5. 주생산품목(순면 CM사)의 수급 동향

- 생산 : 전년동월대비 4.8% 증가(국일방적 설비 증가)
- 수입 : 전년동월대비 27.0% 증가(작년 5월 이후 증가세 지속)
- 수출 : 전년동월대비 83.5% 증가(직수출가격 급등, 작년 11월 이후 급증)
- 재고 : 전월대비 2.8% 증가, 전년대비 12.7% 감소
- 국내소비 : 전년동월대비 11.0% 증가(작년 4월 이후 증가세 지속)

2 | 화섬산업 동향

한국화섬협회

1. 생산

- '10. 1~5월의 화섬 생산량은 592.5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함. 5월 한 달은 127.0천톤으로 전년동월대비 8.9%, 전월대비 1.3% 각각 증가하여 '09. 8월 이후 회복세를 지속함
 - 품목별로는 폴리에스터 F가 직·편물류의 수요회복으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한 306.7천톤, 폴리에스터 SF는 부직포, 방적용의 회복세로 전년동기대비 8.0% 증가한 213.2천톤을 기록
 - 그 밖에 나일론 F, 아크릴 SF는 하이텐션 니트, 타이어코드, 침장류의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0.0%, 21.4% 증가한 58.9천톤, 13.6천톤을 보임
 - 5월 한 달의 생산은 폴리에스터 F가 63.2천톤으로 전년동월대비 7.4%, 나일론 F가 12.8천톤으로 12.2% 각각 증가한 반면, 폴리에스터 SF와 아크릴 SF는 41.7천톤, 2.2천톤으로 4.1%, 21.4% 각각 감소함
 - 전월대비로는 폴리에스터 F가 1.9%, 폴리에스터 SF가 1.0%, 나일론 F가 2.4% 각각 증가한 반면, 아크릴 SF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임

< '10. 1~5월 화섬 생산실적 >

(단위 : 천톤, %)

구분	'10. 1~5월(누계)		'10. 5월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폴리에스터	519.9	10.0	104.9	2.5	1.4
F	306.7	11.5	63.2	7.4	1.9
SF	213.2	8.0	41.7	△4.1	1.0
나일론 F	58.9	10.0	12.8	3.4	2.4
아크릴 SF	13.6	21.4	2.2	△21.4	-
합계	592.5	10.3	119.9	2.8	1.3

* 자료 : 한국화섬협회 회원사 기준

2. 출하

- '10. 1~5월 화섬 출하량은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전년동기대비 8.5% 증가한 596.8천톤을 보임

- 이는 국내 소비경기의 회복으로 내수(로컬포함, 이하동)가 325.0천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3.6% 증가한데다 Global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의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직수출이 271.8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5.0% 증가한데 기인함
- 5월 화섬 전체 출하량은 122.6천톤으로 전년동월대비 8.4%, 전월대비 1.4% 각각 증가를 기록함

< 화섬 품목별 출하 및 재고 추이 >

(단위: 천톤, %)

구 분			출 하 계			
			내수	로컬	직수출	
플리에스터	F	'10년 1~0. 1~5월	306.2	118.0	123.7	64.5
		전년동기비	9.3	△1.5	11.3	31.9
		'10. 5월	63.6	24.0	26.3	13.3
		전월비	2.2	3.0	1.5	2.3
	SF	'10. 1~5월	218.0	29.4	10.3	178.3
		전년동기비	8.2	14.3	△8.8	8.5
		'10. 5월	44.1	6.0	1.9	36.2
		전월비	0.6	1.6	5.5	0.2
나일론 F	'10. 1~5월	57.8	14.0	22.4	21.4	
	전년동기비	4.1	△6.0	△3.8	23.6	
	'10. 5월	12.4	3.2	4.8	4.4	
	전월비	1.6	6.6	-	-	
아크릴 SF	'10. 1~5월	14.3	0.4	6.4	7.5	
	전년동기비	13.4	-	△4.4	36.3	
	'10. 5월	2.2	0.1	1.0	1.1	
	전월비	2.2	-	-	-	
합 계	'10. 1~5월	596.8	161.9	163.1	271.8	
	전년동기비	8.5	0.5	6.8	15.0	
	'10. 5월	122.6	33.4	34.1	55.1	
	전월비	1.4	3.0	1.1	0.5	

* 자료 : 한국화섬협회 회원사 기준

3. 수출입(통관기준)

□ 수출

- '10. 1 ~ 5월 화섬 전체 수출액은 870.2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43.8%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물량으로는 419.6천톤으로 12.9% 증가를 보임

- 국별로는 對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36.8%, 17.8%, 16.6%, 91.8%로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였으며, 특히 터키는 전년동기대비 103.6%의 증가를 보여 가장 성장폭이 컸음. 반면, 파키스탄은 정치경제 불안 등으로 주요 수출국 가운데 유일하게 5.4% 감소를 보임
- 5월 한 달 화섬 수출액은 유럽의 재정위기 재부각과 지정학적 위기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전월대비 3.8% 감소한 181.2백만불, 물량으로는 7.5% 감소한 82.6천톤으로 부진을 보임

<화섬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백만불, 천톤, %)

품 목	'10. 1~5월				'10. 5월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전년 동기비		전년 동기비		전월비		전월비
화섬F	447.5	37.1	133.3	8.8	93.7	△2.7	26.7	△5.9
PF	208.0	30.3	86.0	8.9	41.2	△9.6	16.9	△7.6
NF	125.4	50.1	26.7	11.7	27.9	10.2	5.5	1.8
Spandex	76.1	47.8	9.7	1.0	16.8	4.3	2.0	-
화섬SF	422.6	51.6	286.3	14.9	87.5	△4.9	55.9	△8.2
PSF	331.5	39.2	247.2	10.2	62.8	△9.8	46.0	△11.5
ASF	36.5	160.7	14.0	70.7	10.7	8.0	3.7	5.7
화섬계	689.5	43.8	419.6	12.9	181.2	△3.8	82.6	△7.5

* 자료: KOTIS, 통관기준이며 화섬SF에는 재생섬유 포함

<화섬 주요국별 수출실적>

(단위: 백만불, 천톤, %)

품 목	'10. 1~5월				'10. 5월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전년 동기비		전년 동기비		전월비		전월비
중국	152.3	36.8	63.9	7.4	32.9	-	12.6	△3.8
미국	100.5	17.8	66.6	10.8	17.6	△15.0	11.3	△18.7
베트남	33.7	16.6	13.9	△15.8	7.7	△10.5	3.5	6.1
홍콩	44.7	91.8	10.1	16.1	9.4	△13.0	2.1	△8.7
일본	34.4	49.6	15.5	27.0	7.2	4.3	3.1	-
브라질	34.2	86.9	13.6	41.7	7.8	△7.1	2.7	△20.6
터키	34.0	103.6	10.4	50.7	6.8	△9.3	1.9	△17.4
독일	29.7	59.7	17.4	17.6	5.3	△33.8	2.9	△38.3
인니	26.1	20.8	9.1	△12.5	5.1	△8.9	1.4	△22.2
파키스탄	22.6	△5.4	14.2	△34.9	4.7	6.8	2.7	8.0
세계계	870.2	43.8	419.6	12.9	181.2	△3.8	82.6	△7.5

* 자료: KOTIS

□ 수입

- '10. 1~5월 화섬 전체 수입액은 367.4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71.3%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물량으로는 124.4천톤으로 61.3% 증가를 보임
 - 국별로는 중국, 말련, 인니로부터 저가제품이 큰 폭으로 유입되어 전년동기대비 각각 80.9%, 220.2%, 86.6%로 급증을 보인 반면, 오스트리아, 베트남으로부터는 각각 19.1%, 12.8% 감소를 보임
 - 5월 화섬 수입액은 78.2백만불로 전년동월대비 77.3%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전월대비로는 보합수준을 보임. 물량으로는 25.8천톤으로 전년동월대비 61.2% 증가했으나, 전월대비로는 1.5% 감소함

<화섬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 천톤, %)

품 목	'10. 1~5월				'10. 5월			
	금액		물 량		금액		물 량	
		전년 동기비		전년 동기비		전월비		전월비
화섬F	274.8	100.5	94.1	87.1	58.3	△1.8	19.0	△5.0
PF	123.0	138.8	66.9	100.0	25.7	△4.8	13.3	△6.3
NF	51.7	94.0	10.9	78.6	11.2	5.6	2.3	4.5
Spandex	13.4	13.5	2.0	5.3	3.2	45.5	0.5	66.6
화섬SF	92.6	19.7	30.2	12.9	19.9	6.4	6.7	8.0
PSF	2.9	13.0	1.3	△11.0	0.6	-	0.3	-
ASF	2.8	22.3	0.9	23.0	0.7	53.0	0.2	49.0
Rayon SF	39.7	8.5	14.4	△0.7	9.6	15.7	3.4	17.2
Acetate SF	25.8	26.5	4.7	20.5	4.2	△14.3	0.7	△22.2
화섬 계	367.4	71.3	124.4	61.3	78.2	-	25.8	△1.5

* 자료 : KOTIS, 통관기준이며 화섬SF에는 재생섬유 포함

<화섬 주요국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 천톤, %)

국 가	'10. 1~5월				'10. 5월			
	금액		물 량		금액		물 량	
		전년 동기비		전년 동기비		전월비		전월비
중국	125.2	80.9	45.7	80.6	27.9	0.4	9.9	△1.0
일본	38.6	20.6	7.2	14.3	7.1	△10.1	1.3	△18.8
오스트리아	22.9	△19.1	7.8	△22.0	5.4	△6.9	1.8	△10.0
미국	50.1	146.8	10.0	112.8	11.3	8.7	2.3	21.1
말련	28.5	220.2	18.1	120.7	4.9	△2.0	3.1	△3.1
인도네시아	20.9	86.6	10.2	45.7	4.9	32.4	2.2	15.8
베트남	4.1	△12.8	2.1	16.7	1.0	25.0	0.4	-
대만	20.0	42.9	7.7	△4.9	4.5	12.5	1.5	-
세계 계	367.4	71.3	124.4	61.3	78.2	-	25.8	△1.5

* 자료 : KOTIS

※ 참고자료

본 자료는 영국 컨설팅사인 Tecnon OrbiChem이 지난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한 '2010년 폴리에스터·나일론과 합섬원료 회의' 에서 세계 주요합섬의 생산동향이란 주제로 발표한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임

□ 고순도 테레프탈酸 시장동향

- '07~'08년 원유가격의 급등기에는 폴리에스터 보조원료인 PX와 직접원료인 PTA의 가격이 급등을 보였으나, 그 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원유가격이 하락하자 폴리에스터 원료가격도 동반 하락하기 시작함
- '09년은 폴리에스터 체인의 재고조정과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폴리에스터 제품의 수급이 회복을 보이면서 폴리에스터 원료시황도 회복기조로 전환됨
- 공급에 있어서는 폴리에스터 최대 생산지인 중국에서 대형플랜트의 신규가동이 줄어들어 PX 및 PTA 공히 생산능력이 약 30% 가까이 증가했으나, 수급은 비교적 타이트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격은 안정적인 추이를 보임
- '10. 6월 아시아지역 PX 가격은 원유가격의 하락, 공급여력, 불투명한 다운스트림의 상황 등을 반영하여 5월 톤당 1,060불에서 940불로 하락함
 - 쿠웨이트와 오만의 PX 신설 플랜트의 가동과 중동산 제품의 아시아시장 유입으로 시황약세가 우려되고 있으나, 향후 2개월 정도는 안정적인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PTA 가격은 5월 톤당 910불에서 6월에는 평균 823불 수준으로 추이함

□ 향후 PTA 수급전망

- 최근 몇 년간 증가를 지속한 PTA 수요는 '08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09년에는 이미 회복기조로 전환됐으며, 향후에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ASEAN 등은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일본은 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 가동률은 폴리에스터의 생산증가가 예상되는 중국과 인도가 현저한 상승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다운스트림의 충실화를 지향하고 있는 중동세가 생산, 수요 공히 확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PTA 시장 전망

〈생산능력〉

- 2014년 세계 PTA 생산능력은 6,049만톤('08년 대비 32% 증가)
- 중국은 '08년 대비 81% 증가한 2,223만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 반면, 일본은 31% 감소한 91만톤에 그칠 전망

〈생산량〉

- 2014년 생산량은 5,041만톤('08년 대비 47% 증가)
- 아시아에서는 생산능력이 큰 폭으로 증설되는 중국이 118% 증가한 1,778만톤, 인도가 69% 증가한 380만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밖에 한국이 12% 증가한 632만톤, 대만이 14% 증가한 460만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반면, 일본은 내수 축소로 12% 감소한 90만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歐美는 섬유이외의 폴리에스터 수요에 힘입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北美는 386만톤으로 7%, 西歐는 261만톤으로 15%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가동률〉

- 세계 평균가동률은 83%('08년 실적대비 8포인트 상승)
- 생산능력이 급증하는 중국은 가동률도 80% 수준까지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내수의 성장이 기대되는 인도는 90%대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은 국내공급의 축소로 수급균형을 이루어 Full 가동이 예상되며, 그 밖의 국가(한국, 대만)와 지역은 '08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수요〉

- 세계 수요는 4,620만톤('08년 대비 37% 증가)
- 수요증가의 중심은 아시아로 '08년 대비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 가운데 중국(2,162만톤, 54% 증가), 인도(370만톤, 52% 증가), ASEAN(354만톤, 22% 증가)이 현저한 증가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일본은 9% 감소, 중동은 '14년까지 수요규모가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나일론원료(카프로락탐) 시장동향

- 카프로락탐의 소비는 최근 3년간 감소를 보임. '10년 수요는 '07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 '11년 이후는 연율 3.1% 성장이 예상됨. 이는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Share가 점차 높아진데 기인함
- 금융위기 이후 신공장 건설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어, 수급균형을 위해서는 '14년까지 신설비 증설이 필요한 상황임
- 카프로락탐의 채산성은 중국의 수요증가로 인해 크게 호전되고 있음
- 아디핀산은 歐美로부터 중국으로 생산설비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11년 세계 생산능력은 '08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보임
- 아지포니트릴은 BASF가 '08년 영국 Wilton 공장(연산 11.6만톤)을 폐쇄한 이래 세계 6공장 체제로 축소된 데다 Invista의 미국 Orange 공장(연산 25.4만톤)이 18개월간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나일론 66 Maker는 부타디엔을 비롯한 원료 코스트의 급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부타디엔 가격의 급등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장기적으로 나일론 66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임
- 원유가격이 상승한 만큼 나일론 6과 66 Maker는 폴리에스터 업체로부터 강한 경쟁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주요화섬 동향 및 시장전망

〈폴리에스터 단섬유〉

- 세계 폴리에스터 단섬유 생산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4.6% 성장함. 중국은 '09년 세계 총 생산의 60%를 점유함. '05년 이후에는 인도의 성장이 두드러짐
 - 향후 10년간 연평균 6.1% 성장 기대
 - Recycle 원료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EG, PTA, DMT 등의 성장과 상관성에 변화가 예상됨
 - 폴리에스터 생산은 향후 경기침체 정도에 따라 영향을 쉽게 받을 것으로 보임

〈폴리에스터 장섬유〉

- 세계 폴리에스터 장섬유 생산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7.0% 성장함. 중국이 세계 생산을 견인함
 - 세계 생산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7.9% 성장. 중국과 인도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
 - 한편, 歐美의 생산은 미국의 Carpet용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5~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Recycle 원료의 사용은 소량이지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임

〈나일론 장섬유〉

- 세계 나일론 장섬유 생산은 연평균 1~2%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는 거의 대부분 중국의 증가에 기인함
 - 동남아국가와 인도의 연평균 성장률은 3~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폴리에스터를 중심으로 한 소재 대체의 움직임은 거의 일단락되어 향후 Share 축소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아크릴〉

- 세계 아크릴 생산은 최근 30년간 200~270만톤으로 추이했으나, '07년에는 전년대비 20% 감소를 보임
- '20년에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는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 반면, 歐美, 동아시아는 감소가 예상됨. 세계 전체로는 답보상태로 추이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1~2% 성장,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은 각각 2.5%의 성장이 예상됨

〈폴리프로필렌〉

- 세계 폴리프로필렌 섬유 생산은 연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가운데 중동지역이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폴리프로필렌은 생산국 및 지역에서 자체 소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함

3 | 소모방산업 동향

한국모방협회

1. 원료

-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모사, 모직물의 원료인 Wool Top의 상반기 실적은 전년대비 금액은 58.45% 증가한 90,036천불, 중량은 23% 증가한 7,859톤을 보임
 - 최근에는 연초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되었지만 Wool Top 수입은 공급부족으로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 Wool Top 수입동향

(단위: 천불, 톤)

구분	'09		'09.1~6월		'10.1~6월		증감률(%)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Top	121,686	13,315	56,822	6,388	90,036	7,859	58.45	23.03

* 자료: KOTIS

2. 생산

- 생산에서도 원료수입 증가로 '10. 5월 소모사 생산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4,889톤을 나타냈으며, 소모직물은 6.58% 증가한 7,511천yd를 보임

□ 생산

구분	'09	'09.1~5월	'10.1~5월	증감률(%)
소모사(톤)	12,527	4,889	5,099	4.30
소모직물(천yd)	19,334	7,047	7,511	6.58

* 자료: 통계청

3. 수출입

- 금년 상반기 모직물 전체수출은 연초에는 전년대비 감소를 나타냈으나 5월 이후 소모직물의 증가로 전년대비 1.98% 증가한 20,419천불을 나타냄
 - 세부 품목별로 보면 소모직물은 17.53% 증가, 방모직물은 25.05% 감소
- 모사 수출은 소모사에서 전년대비 31.96% 증가하였지만 방모사의 수출부진으로 모사 전체수출은 10.7% 증가한 15,385천불을 보임

□ 모사 수출

(단위: 천불, 톤)

구분	'09		'09. 1~6월		'10. 1~6월		증감률(%)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소모	13,538	1,193	6,815	617	8,993	557	31.96	△9.72
방모	13,281	1,125	10,079	882	6,102	419	△39.46	△52.49
기타	844	125	335	52	290	57	△13.43	9.62
계	27,663	2,443	17,229	1,551	15,385	1,034	△10.70	△33.93

* 자료: KOTIS

□ 모직물 수출

(단위: 천불, 톤)

구분	'09		'09. 1~6월		'10. 1~6월		증감률(%)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소모	30,460	2,378	12,793	910	15,036	696	17.53	△23.52
방모	16,558	882	7,178	387	5,380	268	△25.05	△30.75
기타	71	2	51	1	3	-	-	-
계	47,088	3,262	20,023	1,298	20,419	965	1.98	△25.65

* 자료: KOTIS(HS551513 T/W 모직물 제외)

- 모사 수입은 5월에 들어서도 계속 급증하여 상반기말 현재 금액으로 129.3% 증가한 18,078천불을 보임. 소모사는 143.76%, 방모사는 66.15% 각각 증가
- 모직물은 연초에는 감소하였지만 5월부터 소모직물 수입이 급증하여 22.44% 증가한 21,455천불 기록. 소모직물, 방모직물은 각각 23.82%, 12.08% 증가
- 한편 신사복 수입은 연초에는 전년대비 대폭 감소를 나타내었으나 최근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켓에서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모사 수입

(단위: 천불, 톤)

구분	'09		'09. 1~6월		'10. 1~6월		증감률(%)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소모	16,013	1,231	5,389	442	13,136	917	143.76	107.47
방모	5,245	358	1,814	120	3,014	200	66.15	66.67
기타	4,323	208	681	42	1,928	124	183.11	195.24
계	25,581	1,797	7,884	604	18,078	1,241	129.30	105.46

* 자료: KOTIS

□ 모직물 수입

(단위: 천불, 톤)

구분	'09		'09. 1~6월		'10. 1~6월		증감률(%)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소모	41,594	903	14,034	309	17,377	286	23.82	△7.44
방모	16,096	387	3,443	73	3,859	118	12.08	61.64
기타	226	24	47	4	219	27	-	-
계	57,915	1,314	17,523	387	21,455	432	22.44	11.63

* 자료: KOTIS(HS551513 T/W 모직물 제외)

4 | 직물산업 동향

한국 섬유 직물 수출입 조합

1. 대미국 지역의 직물류 수출현황

<최근 미국시장 섬유직물류 수출현황>

(단위 : 천불, %)

품목	'09	증감률	'10. 6월	증감률
견직물	18,675	△28.9	11,605	28.5
모직물	2,122	△26.8	915	△34.3
면직물	93,366	△8.6	56,978	32.5
인조장섬유직물	78,712	△19.7	39,542	△1.6
인조단섬유직물	5,835	△16.2	5,792	102.9
편직물	210,957	△20.9	111,736	△3.25
기타직물	111,332	△15.5	68,566	29.7
(타이어코드지)	53,637	31.9	25,491	9.4
(코팅직물)	25,104	△44.0	18,057	64.7
합계	520,970	△17.9	295,134	11.5

* 자료 : KOTIS

- 세계경제가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분명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 경기는 개별적으로 보면 미국, 유럽, 중국 등 경기상승 속도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원화환율의 강세도 예상되어 수출여건과 수익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전세계 직물류 수출은 6월말 약 40억불로 20.7%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 미국 지역도 6월말 약 3억불로 11.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11년 홀세일러의 S/S시즌 오더상담이 불안정한 경기예측으로 그리 밝지 않는 실정

2. 미국시장에서 한국/중국의 시장 점유율 현황

국가 CAT/HS	200	301	313	222	619M	618	625M	622	223	5810	5902	5903
한국(%)	1.0	27.9	37.3	30.1	12.2	31.8	4.6	4.2	1.6	2.4	30.2	8.9
중국(%)	8.8	1.7	27.3	25.3	18.1	9.8	43.3	18.7	11.9	53.3	6.3	17.6

* 자료 : Otexa/Major Shippers Reports

-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의 한국산 직물의 퀄리티 비교우위
- 면사, 면직물, 니트직물, 아세테이트, 타이어코드지 등 가격 및 품질경쟁력의 비교우위

- 중국은 Basic 폴리에스터 감량물, 부직포, 유리섬유직물, 자수직물, 코팅류 등에서 강세
- 재봉사와 R/T 교직물의 중국 비교우위와 최근 니트직물의 중국 추격세가 강함

< '09년도 미국의 주요품목(CAT)에 대한 국가별 수입현황 >

(단위 : 천불)

CAT	Total	Canada	Turkey	Mexico	China P	Germany	France	Korea
200	154,937	36,260	33,813	27,654	13,653	8,887	7,968	347
CAT	Total	Korea	Mexico	Thailand	India	Pakistan	Indonesia	China P
301	71,154	19,844	9,960	9,581	9,275	7,730	5,464	1,178
CAT	Total	Korea	China P	Pakistan	Japan	Indonesia	Thailand	India
313	193,086	72,033	52,713	22,815	22,044	6,998	4,761	2,641
CAT	Total	Korea	China P	China T	Canada	Mexico	Italy	India
222	417,980	125,613	105,952	27,983	27,388	25,871	24,418	22,411
CAT	Total	China P	Canada	Korea	India	Taiwan	Turkey	Japan
619/620	418,729	75,808	63,859	51,272	50,826	26,968	26,906	18,214
CAT	Total	Korea	Canada	Italy	Japan	China P	India	France
618	23,763	7,554	6,295	3,303	2,704	2,319	387	298
CAT	Total	China P	China T	Korea	Canada	Italy	Mexico	Thailand
628	34,902	23,939	3,288	2,857	1,882	559	508	406
CAT	Total	China P	Canada	Italy	India	Turkey	Germany	Korea
629	75,129	23,654	17,168	10,109	4,408	3,934	2,380	2,254
CAT	Total	Canada	China P	Mexico	Denmark	Germany	China T	Korea
622	71,817	13,873	13,426	11,198	5,169	3,259	3,217	3,009
CAT	Total	Israel	China P	Canada	Japan	Germany	Mexico	Korea
223	720,777	89,138	85,877	85,315	81,200	59,842	52,710	11,416
HS	Total	China P	India	China T	Mexico	Thailand	Korea	Switzld
5810	96,543	51,487	12,364	9,201	8,885	3,284	2,349	1,349
HS	Total	Korea	Vietnam	Canada	China P	Mexico	China T	Japan
5902	189,924	57,480	51,318	37,140	11,961	8,132	6,766	6,476
HS	Total	Canada	China P	Japan	Korea	Mexico	China T	Germany
5903	422,141	123,808	74,247	43,073	37,754	28,091	27,744	22,596

* 자료 : Otexa/Major Shippers Reports

* 주 : CAT/HS 품목 정의

- CAT 200 YARN FOR RETAIL SALE, SEWING THREAD /
- CAT 301 COMBED COTTON YARN / CAT 313 COTTON SHEETING FABRIC /
- CAT 222 KNIT FABRIC / CAT 618 WOVEN ARTIFICIAL FILAMENT FAB /
- CAT 619/620 POLYESTER FILAMENT FABRIC, OTHER SYNTHETIC FILA FABRIC
- CAT 628 MMF TWILLS/SATEENS STAP/FIL / CAT 629 OTHER MMF FABRICS OF STAP/FIL
- CAT 622 GLASS FIBER FABRIC / CAT 223 NON-WOVEN FABRICS
- HS 5810 BADGES/EMBLEMS/MOTIFS, MAN-MADE, EMBROIDERY
- HS 5902 TIRE CRD FAB OF HGH TNCY YRN, NYLN, OTH POLYMDDES
- HS 5903 TX FAB NESOI SHEAT O PVC ETC MMF NESOI O 70% RU PL

3. 미국의 면직물(퀼트용, 가정용품 원단) 국가별 수급동향 분석

□ 대미국 면쉬팅(CAT 313 : 20×20/60×60) 직물의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천\$M, 천불)

국가	'08년		'09년		'10. 5월말		
	금액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단가
World	234,885	197,030	193,085	0.98	100,358	96,090	0.96
Korea R	82,720	47,943	72,033	1.50	23,060	35,435	1.54
China p	67,055	73,747	52,713	0.71	38,392	26,435	0.69
Pakistan	26,721	40,826	22,815	0.56	22,103	12,516	0.57
Japan	27,420	12,308	22,044	1.79	5,492	8,942	1.63
Indonesia	7,481	5,139	6,998	1.36	3,699	4,815	1.30
India	3,383	3,519	2,641	0.75	2,463	1,812	0.74
Thailand	5,367	7,319	4,761	0.65	2,457	1,690	0.69
Other	14,738	6,229	9,080	1.46	2,692	4,445	1.65

* 자료 : OTEXA/Major Shippers Reports

- 가별 수입용도에 따른 품질 및 수출단가 차이
 - 한국과 일본은 퀼트용 프린트 가공지를 수출하는 유형으로 수출단가가 높음
 - 중국, 파키스탄에서의 수입은 주로 프라넬, 간호사 유니폼용 등으로 수출단가 낮음
 - 한국산 퀼트용 원단 제품은 고가용 퀼트용 원단 가정용품이며, 중국, 파키스탄 제품은 주로 프라넬(겨울 남방셔츠), 간호사 유니폼용, 퀼트 나염용 생지 원단
- 미국내 생산 및 수급현황
 - 생산과 가공능력이 자국수요에 비해 미미한 실정으로 가격경쟁력 열세로 거의 생산이 저조하며, 이미 생산비용 상승(인건비, 임가공료)으로 중국, 한국, 일본, 파키스탄 등에서 해외 아웃소싱으로 국내 수요를 수입으로 대체하는 품목
 - 수급현황은 미국내 퀼트용 원단 수요는 약 8천만~1억 SM 이상으로 추정됨
 - 원단 생산능력과 가공능력은 전체 10%이내로 한국, 일본에서 프린트 완제품을 약 50%, 전체 90% 이상 해외의존 품목으로 후생증대와 공급부족으로 수입
- 수요계층 및 공급처
 -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퀼트용 원단은 주로 월마트, 일반체인 스토어로 주로 흑인, 이민계, 히스패닉 계층의 중저가로 공급되며, 한국, 일본제품은 약 2,500개 고급 퀼트샵에 공급되는(백인 중산층) 고급직물로 수출단가 우위품목
- 경쟁력 우위요소
 - 중국, 파키스탄 퀼트용 원단은 리피트 오더는 나염 노하우에서 경쟁력 열세
 - 한국산은 리피트오더에서 후가공터치가 우수하고 안정적이며 다양한 칼라 공급

5 | 염색산업 동향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

1. 염색업계 현황

- 염색업종은 전년대비 '10년 가동률은 호전된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10. 1분기 대비 7월 현재 가동률은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조금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중부 지역은 전년대비 높은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10. 1분기 대비 현재 가동률은 10% 정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염색업종의 계절적인 요인도 있으나 최근 국제경기의 장기침체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구경북 지역도 서울중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10. 1분기 대비 현재 가동률은 10~12% 정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부산경남 지역의 현재 가동률은 '10. 1분기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음

2. 업계 주요 동향(에너지(스팀) 비용절감)

□ 현황

- 염색업체의 원가 구성요소는 염료, 화공조제, 인건비, 용수비, 폐수처리비, 전기비, 기타 및 에너지(스팀)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염료는 중국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국제시세와 연동되며, 인건비는 최소한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원가절감 요인이 많지 않음
- 그러나 염색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스팀) 발생비용은 매출 원가의 20~25%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업체 채산성 악화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염색업계는 에너지(스팀) 발생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부각되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개별보일러 스팀공급 방식을 집단 스팀공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집단 스팀공급시설의 연료를 저렴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으로 현재 집단에너지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포천양문단지 염색공단에서 추진되고 있음

□ 추진사항

● 포천양문염색단지 집단열공급사업 추진

- 포천양문단지 40여개 업체가 현재 B-C유 개별보일러를 이용하여 스팀을 발생 염색 공정에 사용하고 있어, 이를 신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열공급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포천양문염색공단 집단열공급사업 추진현황>

1) 사업목적

- 포천양문단지에 입주한 염색업체 애로사항이면서 숙원사업인 에너지 발생비용을 절감시켜 염색업체 경쟁력 향상
- B-C유 개별보일러를 집단열공급시설로 대체함에 따른 공단 대기질 개선으로 깨끗한 공단 및 지역환경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명 : 포천양문단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사업기간 : 2010. 8 ~ 2011. 10
- 시설현황 : 우드칩 보일러, 보조 보일러, 연료투입설비, 환경방지설비, 자동제어설비, 증기공급설비

3) 사업 추진현황

- 사업기획 및 타당성 조사 : 2008. 5월부터 실시
 - 기본설계 착수 및 완료 : 2009. 4. 20~7. 30
 -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 : 2009. 8. 1~11. 30
- 사업권 허가
 - 제출일자 : 2009. 3. 24
 - 승인일자 : 2009. 7. 22
 - 허가기관 : 지식경제부
- 설비 설치부지 용도변경
 - 제출일자 : 2009. 3. 24
 - 승인일자 : 2009. 10. 22
 - 승인기관 : 경기도
- 환경협의 변경
 - 제출일자 : 2009. 3. 24
 - 승인일자 : 2009. 9. 30
 - 승인기관 : 한강유역지방환경청
- 공사계획 승인
 - 제출일자 : 2009. 8. 30
 - 승인일자 : 2009. 12. 3
 - 승인기관 : 지식경제부
- 공사 착공 : 2010. 9월 예정

- 신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열공급시설이 완공되어 업체에 스팀을 공급하는 경우, 업체에서는 현재 B-C유 개별보일러 대비 30~40% 이상 절감된 비용으로 스팀을 사용할 수 있어 업체의 채산성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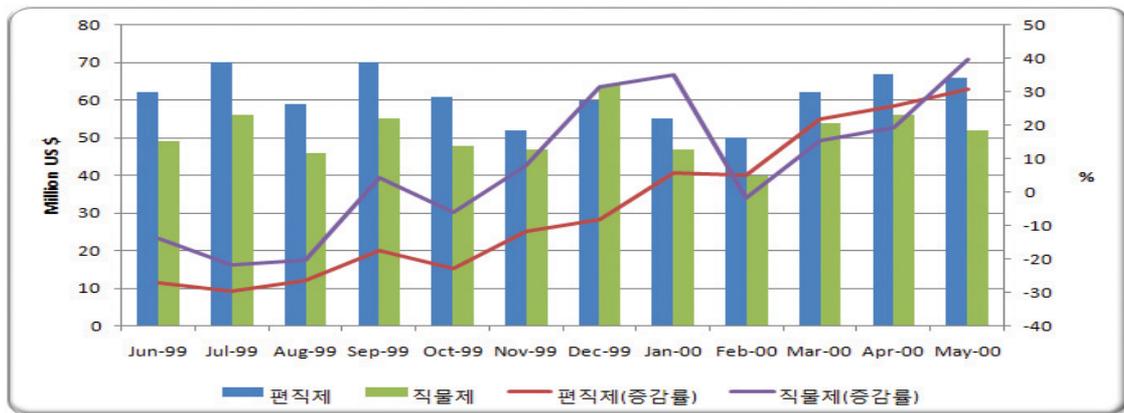
6 의류봉제산업 동향

한국 의류 산업 협회

1. 의류품목 수출입 동향

□ 수출

- '10. 5월말 의류품목 수출은 1,058백만불(누적액 기준)로 전년대비 7.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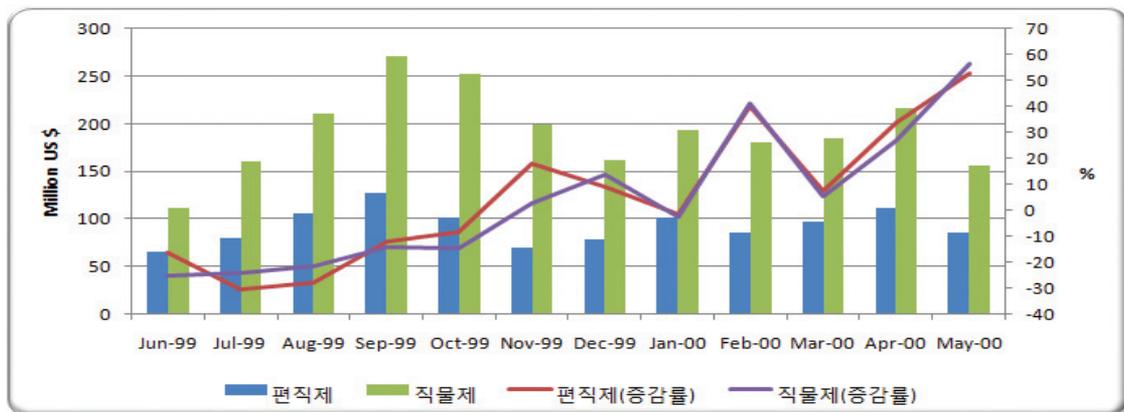


* 자료 : 월별 의류 수출액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한국무역협회

- 편직제 의류는 301백만불로 전년동월대비 17.4% 증가하였으며 특히 장갑류(MTI 441117)는 87.1% 증가한 56백만불의 실적을 기록
- 직물제의류 역시 232백만불로 전년동월대비 24.8% 증가함. 품목별로는 의류부속품(MTI 441220, 86백만불), 드레스(MTI 441209, 26백만불)가 각각 30.8%, 44.8%의 증가율을 기록

□ 수입

- '10. 5월말 의류품목 수입은 1,993백만불로 전년대비 26.1% 증가



* 자료 : 월별 의류 수입액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한국무역협회

- 편직제의류는 509백만불로 전년대비 23.5% 증가하였으며, 특히, 장갑(MTI 441117, 19백만불)은 107.8%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출용 수입이 큰 폭으로 상승
- 직물제의류 역시 755백만불로 전년대비 14.5%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품목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임

2. 수출관련 업계현황 및 애로사항

□ 중국 진출업체 현황

- 노동자의 임금상승과 노동분쟁의 증가로 인해 중국은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 중국정부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국민의 구매력을 높이고 자 이러한 임금상승을 방관하고 있음
-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의 오프쇼어 기업들은 이미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등지로 생산지를 이전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 생산지를 두고 있는 기업들도 중국의 생산여건 악화에 고민중

<중국의 평균임금 변동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임금(위안)	12,422	14,040	16,024	18,364	21,001	24,932	29,229
상승률(%)	14.3	13.2	14.1	14.6	14.4	18.7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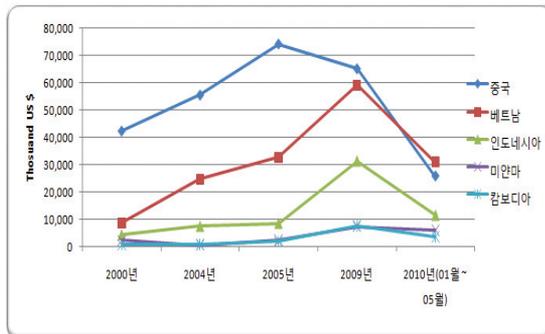
* 자료 : 중국고용 · 노동통계(2009연감)

<중국의 노동분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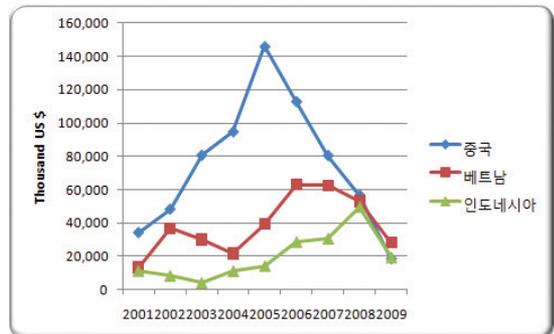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분쟁접수건수	260,471	313,773	317,162	350,182	693,465
증감률(%)	15.1	20.5	1.1	10.4	98.0

* 자료 : 중국고용 · 노동통계(2009연감)

□ 동남아시아 등지로의 생산지 이동



* 한국의 HS code 6217 품목 국가별 수출액, 한국무역협회



* 오프쇼어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규모, 해외경제연구소

- 의류 부속품(HS code 6217)의 수출규모와 해외직접 투자규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생산지가 대체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시사점

-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임금상승은 중국진출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현저하므로 오프쇼어 업체들의 생산지 이전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06년 120억에서 '08년 717억불로 증가하는 등 이미 투자가 많이 진행된 상황. 최근에는 미얀마, 라오스 등지로 진출을 고려하는 업체가 많으므로 이들 국가에 대한 시장조사가 필요한 실정
-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 노조연합과 봉제연합이 최소임금을 두배 가까이 인상하기로 합의를 하는 등 동남아 등에서도 노동자의 임금상승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

3. 봉제업계 주요 동향

□ 우븐 숙녀복 생산업체

- 현재는 비수기 시즌으로 전년대비 오더물량은 20% 정도 감소했으며, 휴가 기간인 8월 중순까지는 공장 가동일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오더 수주를 위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더불어 의류 전품목에 대한 토탈제품 납품형식으로 시장브랜드를 공략하는 등 다양한 판로 모색 필요

□ 와이셔츠 생산업체

- 작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봉제업체의 일감부족 현상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복종 및 유통의 특성에 따라 체감경기에 많은 차이가 있음.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5% 정도 물량이 감소

□ 봉제업계의 대정부 건의사항

- 4대보험 및 각종 세금부담으로 인해 2년마다 업체명을 변경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게 현실인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및 해외인력에 대한 활용보다는 국내 봉제기능사 고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함

4. 해외 선진의류 샘플대여 및 정보제공 현황

□ 6월 샘플정보실 대여분석

- 대여현황 및 품목 : 여성복 > Knit > 남성복 순
- 총 16개사(회원 10, 비회원 6) / 229pcs 샘플대여(의류 205, 도서 24)

□ 주요 샘플 대여업체의 샘플활용 분석

● KIOK(강기옥부띠끄)

- 회사정보 : 여성복 내수 브랜드로 40대 여성을 Focus로 디자인을 진행하며, 점퍼, 데님, 다이마루가 주요 생산품목으로 현재는 '11 F/W 품목으로 가죽 자켓류를 찾고 있음
- 호응도 높은 샘플

품목	데님 워싱 팬츠
11SS-WPT-007	밀라노에서 구입
	구겨놓은 듯한 주름 워싱 및 포켓 장식의 활용이 유용했으며 평범한 데님을 원치 않는 40대 여성들이 많이 찾는 스타일

● 을진실업

- 회사정보 : 여성복 수출회사로 니트 Top이 주생산 품목임. 20~40대 여성을 Focus로 디자인을 진행하며, 미국에서 J**, IN*, A**** 등 대형 체인 백화점 브랜드에 납품을 하고 있음
- 호응도 높은 샘플

품목	레이스 자켓
11SS-WJK-015	런던에서 구입
	Lace로 Jacket을 만들었다는 것이 큰 Merit인 아이템. 여밈이 없이 오픈 식으로 되어있는 자켓이 독특하고 신선한 발상을 주어 바이어들의 오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 누리안인터네셔널

- 회사정보 : 여성 Knit(Tops & Dresses)를 수출하는 업체로, 미국내 대표적인 여성 속옷 브랜드 V사 등 20~40대 여성을 Focus로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음
- 호응도 높은 샘플

품목	Mesh Top
11SS-WJ-042	런던에서 구입
	원단 부분에 있어서 바이어가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Mesh소재와 Lace 소재 샘플이 다양하여 적합한 원단 샘플로 활용되었음

7 | 패션산업 동향

한국패션협회

1. 복종별 상반기 매출 동향

- 캐주얼의류 상반기 매출 큰 폭 신장
 - 지오다노, 지난해 4분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50% 넘는 신장세 유지
 - TBJ, 20% 신장된 525억원 매출 예상
 - 폴햄, 10% 성장한 645억원 매출 예상
 - 뱅뱅, 가두점은 보험세를 보였으나 홈쇼핑으로 300억원 매출 기록
 - 티니위니, 33% 성장한 450억원, 행텐, 15% 성장한 490억원 매출 기록
- 커리어 브랜드 매출 백화점서 크게 신장
 - 일부 백화점에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와 커리어 존이 복합 구성된 새로운 존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소비층이 늘어남
 - 이에 따라 타임, 벨라디터치, 쉬즈미스, 후라밍고 등 호조
- 아동복 무더위 속 여름상품 판매 호조
 -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민소매 티셔츠, 쿨맥스 등 기능성 소재 사용 티셔츠, 원피스가 히트 아이템으로 매출 상승
 - 빈폴키즈, 지난 6월 매출 전년대비 34% 신장
 - 에스크주니어, 인기 원피스 아이템 70% 이상 판매율 기록
 - 012베네통, 캔키즈, 트윈키즈, 빈 등 여름 상품 판매율 상승
- 아웃도어 백화점서 신장률 톱 기록
 - 아웃도어가 올 상반기 백화점에서 최고 신장률 기록
 - 코오롱스포츠, 노스페이스, 라푸마, 케이투, 컬럼비아스포츠웨어 등 주요 브랜드들과 블랙야크, 밀레 등 신규 입점 브랜드 선전
 - 백화점 아웃도어 PC 신장률 33~40% 신장
(롯데백화점 33%, 현대백화점 36%, 신세계백화점 40% 신장률 기록)

2. 패션 유통 동향

- 인터넷 쇼핑몰 남성 방문객 64%로 여성 36%보다 1.8배 많음
 - 주요 관심분야 : 자동차, 컴퓨터, 가전제품 등과 관련한 인터넷 쇼핑몰 남성 방문객은 75~80%로 여성을 압도함

- 사이트 체류시간 : 남성 28분 1초, 여성 27분 50초
- 연령별 이용 빈도(남성)
 - 30대(42.6%) > 20대(28.9%) > 40대(14.4%) > 50대이상(6.6%)
 - 높은 연령층으로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가 확대되는 추세
- 남성 인터넷 쇼핑 증가원인
 - 남성의 외모나 패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쇼핑시간이 적게 들어 주변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인터넷 공간에서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쇼핑을 즐기고 있음
- H&M, 여의도 IFC몰 3호점 오픈 예정
 - '11년말 오픈 예정인 여의도 IFC몰 H&M 3호점은 2,500㎡ 규모에 2개층으로 구성됨. 앞서 H&M 1, 2호점은 명동에 위치함
- 신세계백화점 가드로브 인기
 - 경제력과 패션 감도를 갖춘 중년여성을 타깃으로 한 수입 편집숍인 가드로브 40~50대 여성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
- 직매입 백화점 도입 시선 집중
 - NC백화점 오픈 '10.6.3 오픈
 - 국내 최초의 직매입 백화점을 선언, 이랜드리테일(대표 오상훈)에서 직매입 백화점인 NC백화점을 오픈함
 - 영국의 데벤함스 백화점에서 오는 12월 한국 진출 예정
 - 서울 황학동과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점포 운영 예정

※ 직매입 시스템은 기존 수수료 방식 대신 유통에서 상품을 구입해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하는 체제로 유통단계가 줄고 수수료 거품을 제거해 상대적으로 판매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영국의 데벤함스(Debenhams)는 유럽의 대표적인 중가형 백화점으로 유명디자이너와 협업한 자체상품(PB)과 가격 경쟁력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음

3. 패션 대기업 2분기 실적

- 패션 대기업 3사는 지난 2분기 유통망 확대와 여름상품 판매호조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향상됨
- 제일모직은 2분기 전년대비 12.5% 증가한 1조3092억원 매출이 전망되며 영업이익은 27% 늘어난 984억원 예상, 이중 패션부문은 270억원 추정

- LG패션은 18.9% 신장한 2,715억원의 매출과 20.4% 신장한 293억원의 영업이익이 기대됨. 여성복과 아웃도어 브랜드의 고성장과 남성복의 회복세, 신규 브랜드의 턴어라운드 등이 성장을 이끈 요소로 평가됨
-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산자, 필름, 화학, 패션 등 전 사업 부문의 호조로 2분기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치인 559억원을 상회하는 6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대비 56% 신장한 것임. 패션이 속한 FnC부문은 코오롱스포츠와 헤드를 비롯하여 골프웨어 브랜드들의 신장이 이어졌고, 캠브리지코오롱도 캠브리지와 맨스타의 회복세, 중가 브랜드들의 선방으로 실적 개선에 일조함

4. 2010 남아공 월드컵 유니폼 후원 현황

- 월드컵은 전 세계 축제로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 등 스포츠 브랜드들은 기능성 소재에 디자인까지 더한 유니폼으로 각국의 축구문화와 국가 정체성을 보여주며 수익성이 높은 브랜드 광고로 활용됨
 - 아디다스 : 그리스,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덴마크, 멕시코, 슬로바키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일본, 파라과이, 프랑스 등 총 12개국 후원
 - 나이키 : 대한민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 브라질,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영국, 포르투갈, 호주 등 10개국에 유니폼 키트 제공
 - 푸마 : 가나, 스위스, 알제리, 우르과이, 이탈리아, 카메룬, 코트니부아르 등 7개국 이상 지원



5. '10. 7. 1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패션의류 전품목 확대 실시

- 지식경제부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의 표시 의무화,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를 운영하고 있음

- 동 고시 제12조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 등의 매체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은 금년 7/1부터 확대됨(패션의류는 4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
- 이는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특히 대리점 체제하의 품목)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표시하여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은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임.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시행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업계는 사전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의 어려움과 유통 과정상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업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지경부는 업계의 애로를 감안하여 지도 점검시 금년말까지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정권 고선에서 운용할 계획임. 동 조치는 금년 7/1 이후 출고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6/30 이전 출고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제조업자가 판매자를 겸하게 되는 직영점이나 위탁판매(백화점) 형태의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함
- 정기세일(시작과 끝이 정해져있음)의 경우에는 POP 등을 통해 할인폭이 제시되므로 판매 가격 수정이 필요치 않으나, 시즌오프 등 기타 세일의 경우에는 인화된 판매가격으로 변경 부착하여야 함

8 대구경북 섬유패션산업 동향

한국 섬유 개발 연구원

- 최근 대구경북지역 섬유업계는 계절적 성수기와 재고소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 등의 요인으로 섬유수출 증가세가 전년동월대비 7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오더는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생산시설과 생산인력 부족 등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음
- 대구경북지역의 5월 섬유류 수출실적은 250.3백만불로 전년동월대비 31.7% 증가, 전국의 섬유류 수출실적은 전년동월대비 27.2% 증가한 1,158.8백만불을 기록하였음

<월평균 섬유류 수출추이>

(단위 : 백만불, %)

구분	'07	'08	'09. 1~2	3~4	5~6	7~8	9~10	11	12	'10. 1	2	3	4	5
대구경북	204	230	152	198	197	198	210	207	228	196	195	240	265	250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11.1	12.7	-27.6	-20.2	-20.6	-19.1	-11.0	7.3	21.3	35.2	22.6	30.9	24.5	31.7
전국	1,121	1,110	735	1,025	958	989	1,041	1,000	1,138	923	880	1,130	1,283	1,159

* 자료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텍스토피아 통계자료(한국무역협회 자료가공), 2010. 5.



- 수출 주요국별 전년동월대비 주요 특징을 보면,
 - 대구지역에서는 미국이 면직물, 니트직물, 장갑을 중심으로 58.9%(4.9백만불) 증가, 터키는 니트직물, 폴리에스터직물을 중심으로 108.6%(1.8백만불) 증가가 있었으며, 인도에서도 145%(1.7백만불) 증가율을 나타내었음

- 경북지역은 일본이 원사, 타이어코드, 폴리에스터직물을 중심으로 62.8%(3.1백만\$) 증가, 미국은 타이어코드, 장갑, 폴리에스터직물을 중심으로 36.1% (3.0백만\$) 증가, 터키, 브라질, 이탈리아 등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음

<주요국별 섬유류 수출실적>

(단위: 백만불)

구분		중국	베트남	미국	인도네시아	홍콩	일본	아랍연합	사우디	터키	브라질	
대구	2007년	186.6	62.2	135.5	45.4	103.3	38.8	99.1	51.0	25.3	17.4	
	2008년	192.1	63.9	123.3	46.1	88.6	40.5	132.1	71.4	25.7	20.9	
	2009년	160.8	63.5	102.8	36.3	74.7	34.6	125.8	50.1	25.9	20.7	
	'09년	3월	14.1	4.8	10.8	3.4	5.8	2.2	9.6	3.8	1.1	1.3
		4월	18.1	7.9	9.5	4.7	7.7	3.0	11.9	5.7	1.9	1.8
		5월	15.9	5.4	7.6	3.1	6.3	2.9	10.5	6.2	1.7	1.9
		누계	65.6	25.6	43.7	15.7	27.3	14.3	48.2	22.9	7.4	7.1
	'10년	3월	14.7	6.2	11.8	4.9	7.3	3.8	10.1	4.9	3.1	1.5
		4월	21.0	7.4	13.0	5.1	9.5	3.3	12.8	7.0	3.8	1.4
		5월	18.4	5.6	12.1	4.1	7.2	3.4	13.0	6.3	3.6	1.9
		누계	73.5	27.6	56.1	20.2	33.0	16.5	55.3	24.9	15.1	7.6
	경북	2007년	225.2	52.4	171.5	29.1	51.6	69.5	48.3	45.0	71.4	44.7
2008년		261.4	64.3	171.0	34.8	49.3	97.0	61.7	57.8	59.8	47.4	
2009년		234.4	68.0	102.2	40.3	53.0	80.6	64.2	47.7	48.4	40.8	
'09년		3월	18.9	4.6	8.8	4.3	3.8	6.0	6.3	3.4	2.3	2.8
		4월	21.7	6.1	7.6	3.6	4.2	5.9	6.6	4.1	3.7	3.9
		5월	20.4	5.2	8.2	3.1	5.5	5.0	5.9	4.0	4.2	3.5
		누계	85.9	21.5	43.2	17.7	18.8	29.2	26.8	16.2	15.4	13.1
'10년		3월	20.5	5.3	13.1	4.2	4.6	8.3	6.5	4.8	6.8	5.6
		4월	22.6	7.2	13.0	4.1	4.8	9.2	7.7	5.6	6.3	6.7
		5월	22.1	6.8	11.1	3.3	7.1	8.1	7.4	5.4	6.5	5.9
		누계	102.0	26.1	60.0	18.8	25.7	41.3	31.3	23.8	30.5	25.9

* 자료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텍스토피아 통계자료(한국무역협회 자료가공), 2010. 5.

- 대구경북지역의 주요 품목별 현황은 폴리에스터직물이 전년동월(5월)대비 수출금액이 15.0%(8.4백만불) 증가한 64.3백만불, 수출평균단가는 5.8% 증가한 9.14불, 년누계치 전년동기(1~5월)대비에서는 금액에서 16.1% 증가, 단가에서는 3.8% 증가를 기록하였음
- 니트직물은 수출금액이 43.8%(8.5백만불) 증가한 27.9백만불, 수출평균단가는 4.3% 증가한 4.93불, 년누계치 전년동기대비에서는 금액에서 26.9% 증가, 단가에서는 3.0% 증가를 기록하였음. 수출과 아울러 내수에서도 활발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내외적인 단가상승 요인은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단가에는 미미한 반영으로 채산성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나일론 직물은 수출금액이 25.7%(0.9백만불) 증가한 4.4백만불, 수출평균단가는 5.0% 감소한 13.35불, 년누계치 전년동기대비에서는 금액에서 19.8% 증가, 단가에서는 6.2% 증가한 좋은 실적을 기록하였음. 수출과 아울러 내수에서도 모두 활기를 띄고 있으며, 특히 세데니어 박지직물은 스포츠레저용으로 오더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음
- 복합교직물은 수출금액이 28.8%(1.7백만불) 증가한 7.6백만불, 수출평균단가는 5.8% 증가한 5.52불, 년누계치 전년동기대비에서는 수출물량은 많지 않으나 금액에서 28.0% 증가, 단가에서는 8.0% 증가를 기록. 복합교직물은 단납기 소량오더의 비중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관계로 납기일 준수에 다소간의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음

<품목별 섬유류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

구분	'07년	'08년	'09년	2009년				2010년							
				3월	4월	5월	1~5월	3월	4월	5월	전월비	전년비	1~5월	전년비	
섬유원료	384.8	432.9	334.4	23.8	24.9	25.9	118.9	37.0	35.4	34.5	-2.7	33.2	170.0	43.0	
섬유사	352.0	475.3	430.3	32.1	33.0	34.4	151.7	42.9	45.6	46.5	2.0	35.2	215.5	42.0	
직물류	나일론	36.2	38.9	31.9	3.4	4.7	3.5	14.4	3.3	5.5	4.4	-19.4	25.7	17.2	19.8
	폴리에스터	677.5	734.5	628.3	49.1	62.6	55.9	246.6	60.7	71.8	64.3	-10.4	15.0	286.3	16.1
	복합교직	99.4	92.7	75.2	5.0	7.4	5.9	29.0	7.7	8.3	7.6	-9.3	28.8	37.2	28.0
	면직물	128.6	99.2	86.4	7.1	8.2	6.4	32.6	9.4	9.7	9.7	0.1	51.6	42.3	29.7
	니트	251.8	260.5	238.8	21.0	23.9	19.4	95.5	26.0	27.7	27.9	0.9	43.8	121.2	26.9
	기타	363.7	464.1	379.5	30.7	37.8	28.0	150.1	37.7	44.9	40.0	-10.9	42.9	185.0	23.3
	계	1,557.2	1,690.0	1,440.0	116.2	144.5	119.1	568.3	144.7	167.9	154.0	-8.3	29.3	689.3	21.3
	섬유제품	151.2	156.8	137.7	10.2	10.8	10.1	49.0	15.0	16.2	15.4	-4.7	52.5	71.4	45.7
섬유류합계	2,445.3	2,755.0	2,342.4	182.3	213.2	189.6	888.0	239.6	265.0	250.3	-5.6	32.0	1,146.3	29.1	

* 주 : 품목분류는 MTI코드 기준, 복합교직물은 기타합섬직물(434300), P/C직물(435110), 기타 폴리에스터직물(435190), 혼방재생단섬유직물(435990)을 포함

* 자료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텍스토피아 통계자료(한국무역협회 자료제공), 2010. 5.

- 생산부문은 오더량의 증가와 함께 활발한 생산활동은 전개되고 있으나, 수요 증가와 함께 다품종 소량 등 작업조건이 복잡한 오더의 확대에 의해 다소간의 작업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생산설비 증설을 검토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설비 부족으로 인한 생산활동의 어려움은 계속 존재하고 있음
- 재고운영에 있어서는 그동안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획생산 중심에서 출하량에 의한 최소 안전재고 중심으로 전환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 계속되는 출하량의 증가로 인하여 재고소진과 물류흐름의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인력수급은 그동안 기능인력과 기술인력 전반에서 부족현상이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계속되는 생산가동 증가로 인해 기능인력에서 절대적인 부족현상이 발생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역산업진흥사업내 ‘하이테크 섬유소재 핵심인력 양성사업’ 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을 통한 전문인력 지원과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을 통한 기능인력 지원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기업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자금사정 및 채산성에서는 매출증가로 인해 자금회전은 다소 원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채산성에서는 원사가격, 에너지 비용과 부자재 가격 등에서 계속되는 인상으로 인하여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환율은 하락적인 측면보다는 잦은 변동으로 인해 오더추진과 예측경영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 향후 전망도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 중국의 경기과열에 대한 긴축전환 등의 대내외적 변수가 존재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완만한 진행속에서 ASEAN 등 對개도국 중심으로 수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섬유업계에서는 상승세의 지속과 우리 상품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차별화 제품개발 가속화와 인력 및 설비부족 등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9 대구경북 하이테크 섬유산업 동향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 하이테크 섬유산업 업체 진출현황

□ 하이테크 섬유산업 진출 희망기업이 많음

- 기업들의 하이테크 섬유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큰 것으로 나타남. 향후 하이테크 섬유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91.9%로 성장 가능성을 밝게 전망하고 있음. 아울러 이미 기술개발이나 제품생산과 함께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가진 기업들도 많아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하이테크 섬유 전문인력 양성 필요

- 하이테크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전문성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업체가 75.7%로 인력확보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인력수요가 예상되므로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업들의 애로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신규 기술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재직자 기술향상, 기술전환 교육을 통해 기존인력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 하이테크 섬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는 나노소재, 전자 등 섬유 융합 관련 하이테크 섬유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고급핵심 인력양성 교육(44.6%)을 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음. 그리고 기능성 신소재 기술교육(25.7%) 또한 수요가 높아 기업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힘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 초기 투자비 부담에 따른 자금지원 필요

- 하이테크 섬유로의 진출시 기업들이 가진 애로를 보면 개발자금이 부족하다는 점(59.5%)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으며, 시장진입 초기 투자비용 부담(45.9%)으로 인한 애로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남. 하이테크 섬유산업의 발전과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자금지원과 함께 사업 진입을 위한 장비 및 시제품 생산 등 소요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이 필요함

□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시장 정보제공 수요가 높음

- 하이테크 섬유와 관련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은 기술개발 지원(71.6%)이었으며 이어서 시제품 제작 지원(60.8%)과 국내외 최신정보 제공(41.9%)에 대한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나, 이들을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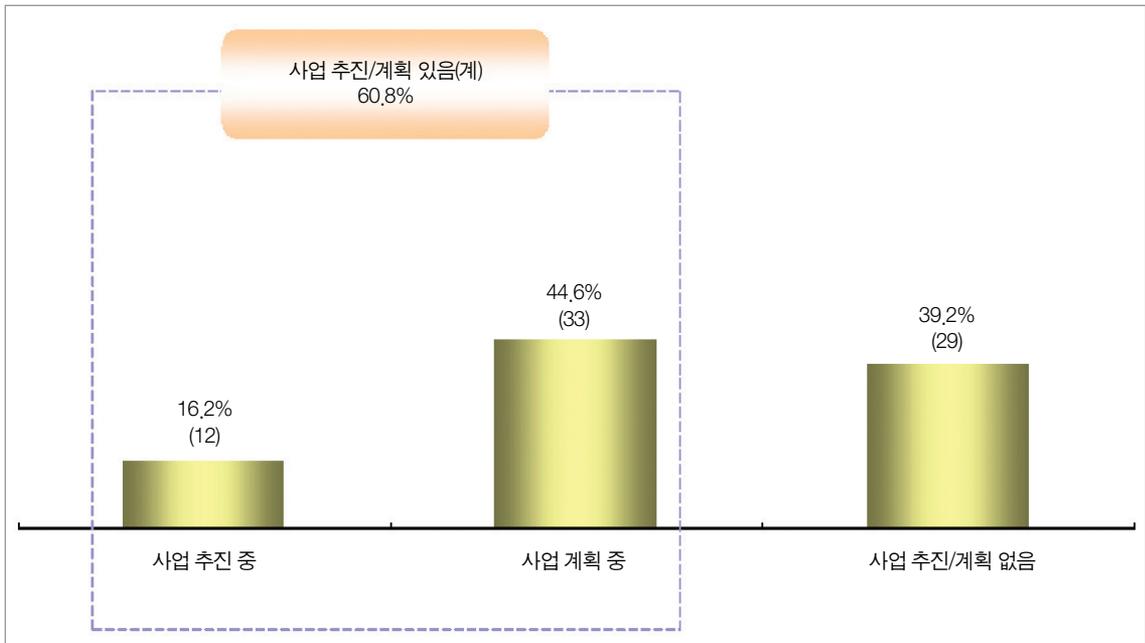
□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

- 하이테크 섬유 관련 정보제공에 있어서 기업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였는데, 최신기술 정보(43.2%)와 신제품 정보(35.1%)를 많이 필요로 하며, 또한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24.3%) 제공을 원하고 있었음
- 이와 같은 정보요구는 향후 하이테크 섬유의 시장전망은 높게 보지만 아직은 시장에 대한 정보와 기술정보, 트렌드 등 정보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업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우리나라 하이테크 섬유산업의 육성과 발전, 기업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 여겨짐

2. 하이테크 섬유 기술개발 현황

□ 하이테크 섬유산업 진출 및 확대계획

- 조사기업 중 하이테크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업체가 16.2%이며, 사업을 계획 중인 업체는 44.6%로, 60.8%가 사업 진출 및 확대 계획이 있었음



● 하이테크 섬유사업 진출 및 확대이유

- 하이테크 섬유사업 진출과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45개 업체들은 앞으로의 성장전망이 높아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업체가 48.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구분 (사업추진, 계획인 기업에 한해)	진출 및 확대 이유					
	앞으로의 성장전망이 높음	최근 시장규모의 확대	생산제품(기술)과 관련성 높음	지역/국가의 지원 기대	정책 및 지원사업 추진중	무응답
전체 45개사 (비중)	22 (48.9%)	10 (22.2%)	9 (20.0%)	1 (2.2%)	1 (2.2%)	2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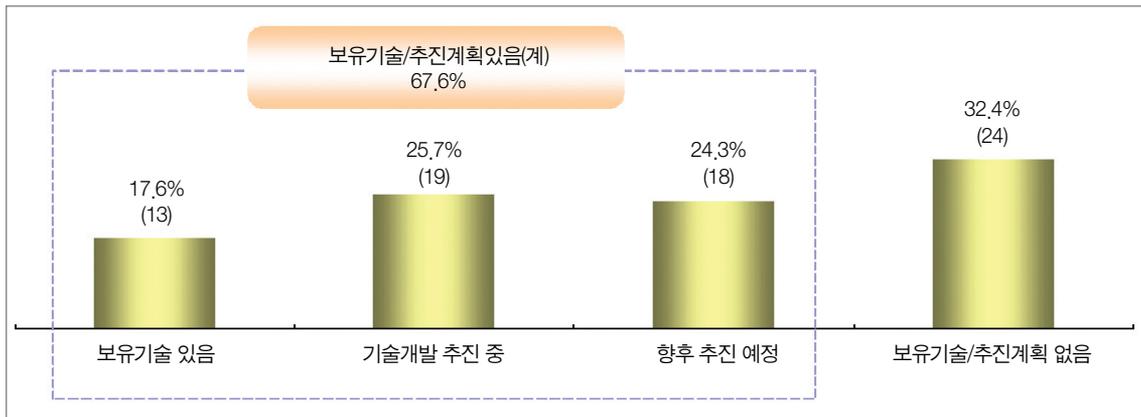
● 사업 진출 및 확대하지 않는 이유

- 사업 진출 및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주 이유는 수요 및 시장의 불확실성과 관련정보 부족을 이유로 꼽은 기업이 각 31.0%로 나타남

구분 (사업추진, 계획 의사가 없는 기업에 한해)	진출 및 확대하지 않는 이유				
	개발자금 부담	기술인력 부족	수요 및 시장 불확실	관련정보 부족	무응답
전체 29개사 (비중)	6 (20.7%)	3 (10.3%)	9 (31.0%)	9 (31.0%)	2 (6.9%)

□ 하이테크 섬유 기술개발 현황

- 하이테크 섬유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7.6%, 기술개발을 추진중인 업체는 25.7%, 향후 기술개발 추진예정인 기업은 24.3%로 총 67.6%의 기업이 하이테크 섬유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계획에 있음



● 기술 단계

- 하이테크 섬유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개발 추진(계획중)인 50개 기업들의 기술단계를 보면, 추진예정인 기업이 32.0%, 시제품 완성단계 기업이 28.0%, 제품초기 기획수립 단계 기업이 20.0%임. 그 외 해석분석 단계(8.0%), 설계 단계(2.0%)인 업체도 있었음

구분 (관련기술 보유, 추진, 예정인 기업에 한해)	기술 단계						
	추진예정	제품초기 기획수립 단계	설계단계	시제품 완성단계	해석분석 단계	기타	무응답
전체 50개사 (비중)	16 (32.0%)	10 (20.0%)	1 (2.0%)	14 (28.0%)	4 (8.0%)	1 (2.0%)	4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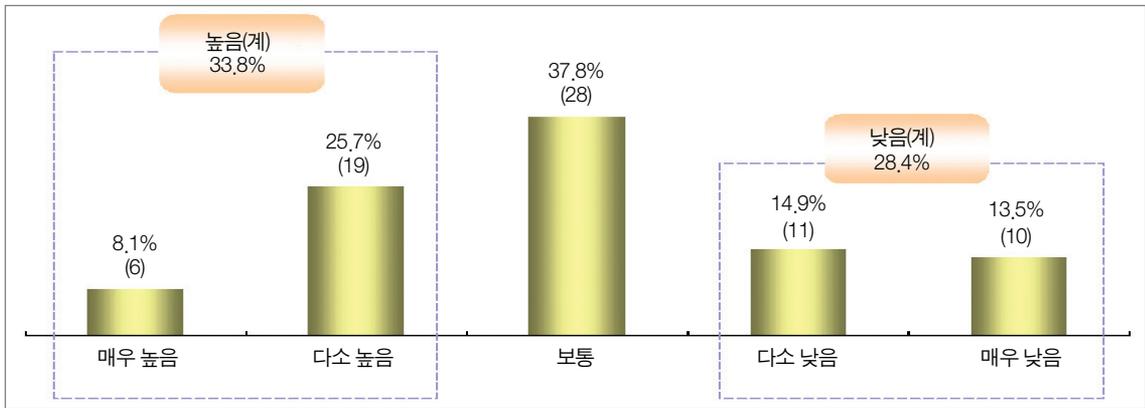
□ 기술개발 형태

- 기업의 기술개발 유형을 보면, 기술개발을 자체로 하는 업체가 5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가 28.4%, 대학 및 연구기관에의 위탁(5.4%), 기술구입(4.1%) 순이었음

구분	기술개발 형태					
	자체개발	대학/연구기관 공동연구	대학/연구 기관 위탁	기술구입	기타	무응답
전체 74개사 (비중)	42 (56.8%)	21 (28.4%)	4 (5.4%)	3 (4.1%)	3 (4.1%)	1 (1.4%)

□ 하이테크 섬유와의 기술접목 가능성

- 현재 생산품목과 하이테크 섬유와의 기술접목 가능성이 높다는 업체는 전체의 33.8%로 나타남. 보통은 37.8%였으며, 낮다는 업체는 28.4%로 나타남



□ 적용 가능성이 높거나 관심있는 하이테크 섬유분야

- 하이테크 섬유 중 기업에서 향후 적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나 관심이 높은 분야로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향균, 방취섬유와 기후대응 섬유가 각각 3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분야(중복응답)	기업수(개)	비율(%)
형상기억 섬유	7	9.5
나노기술을 이용한 향균, 방취섬유	25	33.8
발열, 보온, 냉각 등 기후대응 섬유	25	33.8
투습, 방수, 정전기 등 방지기능 섬유	15	20.3
초경량 소재	21	28.4
건강 및 생체정보 파악가능 메디컬섬유	11	14.9
디지털 기기/의류 결합 스마트섬유	4	5.4
기타	7	9.5

□ 보유기술 및 필요기술

- 74개 조사기업의 하이테크 섬유관련 보유기술을 보면, 촉감(18.9%)을 비롯해 외관(16.2%), 광택(14.9%)의 고감성 섬유 기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성능 섬유 중에서는 내열성, 난연성(14.9%) 보유기술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향후 필요한 하이테크 섬유기술로 고성능 섬유에서는 고강도, 고탄성률, 고충격강도(40.5%), 내열성, 난연성(37.8%) 기술이, 고기능 섬유에서는 광반사, 광흡수, 발열기능(28.4%) 기술, 고감성 섬유에서는 촉감(41.9%) 기술이 가장 많이 꼽힘

10 | 경기북부 섬유패션산업 동향

한국 섬유소재연구소

1. 지역산업 동향

□ 원사(사가공)

- 원사가격의 상승세, 사가공의 작업량은 많으나 이윤창출에 어려움에 처함
 - 원사가격은 작년대비 20~30% 급등세로 당분간 지속 예상
 - 사가공업체의 경우 작업량의 증가로 인해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바이어의 지속적인 Cost Reduction 요구로 인해 이윤창출에 애로사항이 많은 상태

□ 편 직

- 원사가격 급등, 내수 중심업체의 이중고
 - 면사 뿐만 아니라 화학섬유 모두 가격상승(20~30%)
 - 인도, 파키스탄의 자산업 보호정책 여파로 원사, 원면가격이 상승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나, 현재 소비시장의 분위기로 볼 때 가격인상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태임. 때문에 편직업체와 같은 제조업체에서는 원재료 가격은 상승하고 이익은 점점 줄어드는 이중고에 빠져 있는 상태임

□ 염 색

- 인력난 문제는 여전, 내수업체의 가동률은 좋은편
 - 소규모 업체의 경우, 사장이 직접 염색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인력문제가 심각함
 - 내수업체의 경우, 최근 물량이 많아 가동률은 좋은편임

□ 후가공

- 일부 친환경공법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불황, 인력난 문제 심각
 - 중국제품 범람과 국제경기 하락으로 오더량이 '07년도 이후 급격히 감소한 후 회복 기미 현상은 좀처럼 보이지 않음
 - 최근 건식 방식의 라미네이팅과 투습방수 가공은 친환경공법 적용으로 일부 오더량을 확보한 듯 보이고, 면니트의 방축가공 분야 오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물량 증가로 인한 시설증축 사례도 일부 있음

- 외국인 노동자 단속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에 빠져 납기문제로 Repeat Order 수주 조차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남

□ 부직포

- 자동차 내장재의 경우 작업량은 많으나 이윤창출에 어려움
 - 자동차 내장재의 수요가 많고 이로 인해 작업량은 많으나 자동차업체의 압력으로 마진이 5% 이하인 경우가 많아 이윤창출에 어려움이 많음
- 의류용/산업용 모두 중저가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과당경쟁과 제고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음
 - 의류용 부직포는 저가제품 중심으로 되어 있고, 과당경쟁체제로 어려운 상황임
 - 산업용의 경우, 건축 내장재나 농업용 등은 꾸준한 오더가 있으나, 이 역시 중저가 제품 중심과 제고문제 등으로 자금흐름은 어려운 상황임

2. 지역업계 동향

□ ‘경기북부 섬유인의 밤’ 개최

- 지난 6월 10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경기북부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발전모델 논의 및 유대강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연구소 주관으로 ‘경기북부 섬유인의 밤’ 을 개최하였음
 - 본 행사는 섬유패션산업의 제도약을 위해 경기북부 섬유교류의 장 확대 및 섬유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경기북부를 첨단 섬유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고자 마련된 자리로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됨
- 특히 본 행사에는 김성수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향후 경기북부 섬유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 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표명함
 - 뿐만 아니라 패션그룹형지 최병오 회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섬유패션기업 CEO가 참석하여 경기북부 섬유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뜻을 모아 협력할 것을 약속함

□ ‘서울대 섬유패션최고경영자 과정’ 원우 초청

- 지난 6월 19일 한국섬유소재연구소는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핵심주역인 서울대 패션 최고경영자과정(AFB10기) 원우를 대상으로 세계적인 니트메카로 성장한 경기북부지역을 홍보하고자 초청행사를 진행함. 행사는 김성수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섬유패션산업의 CEO 등 약 70여명이 참석함
 - 또한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섬유소재연구소 김숙래 소장은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우수성 및 발전가능성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산업 이미지 제고 및 향후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함

- 경기북부 지역은 니트와 염색가공을 중심으로 섬유단지와 가구단지를 축으로 벨트가 짜여진 상태로 LG패션, 형지어패럴 등 패션부문 봉제투자 역시 맞물려 나가고 있는 상태로 향후 한국 섬유패션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경기도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 대표자 회의

- 지난 7월 12일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김문수 도지사 주재로 경기도 산하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 대표자 회의를 개최
 - 한국섬유소재연구소의 기업지원 사례 발표(성공 Model)
 - ‘민선 5기 도 과학기술 10대과제’ 발표
- 이날 참석한 기관장 및 경기도 측을 대상으로 우수기관사례로 김숙래 소장이 연구소 소개 및 투어를 진행하여 향후에도 성과 및 현장중심의 기업 R&D를 지원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도에서도 이를 적극 육성하기로 함
 - 또한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민선 5기 도 과학기술 10대과제’를 발표하였으며 회의에는 도청 간부공무원 및 8개 도 산하 과학 관련기관 대표자가 참석함. 도는 이밖에도 과학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을 총괄하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함

11 | 충남유구 자카드산업 동향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1. 충남유구 지역 자카드 직물산업

- 충남유구 지역의 자카드 직물산업은 지역적 특성으로서 '70년대 말까지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나, '80년대 이후 섬유산업에 대한 사양화 인식과 더불어 점점 답보 상태의 길을 걸어왔음
 - 현재 유구지역에 총 130여개의 자카드 업체가 집적화 되어 있으나, 그중에서 약 80여개의 업체만이 자카드직물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유구지역 자카드 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의 개인기업 형태로서, 단순 임가공에 그쳐 제품에 대한 고부가가치로의 형태전환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 또한, 유구지역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자카드직물의 다양한 용도제품 개발 미흡으로 유구 자카드 브랜드 이미지가 전무한 상태라 말할 수 있음
- 최근 세계적 경향은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경쟁국과의 차별화 추세이나 유구지역은 인테리어직물 위주의 원단생산에 국한되어 있어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유구지역의 자체 고유브랜드 개발 및 상품의 다양화, 유구만의 독특한 상품개발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 지역 자카드산업의 네트워크 구축수준은 상당히 낮은 정도이고 기업들은 각자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또는 기관들과는 수직적인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으나, 자카드 기업들간 또는 대학, 연구소 및 지원기관들과의 기술 및 디자인 R&D, 상품화, 판매, 마케팅 분야를 위한 수평적 네트워크는 전무함
- 자카드직물은 일반직물과는 달리 복잡한 무늬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직물을 구성하는 경사와 위사의 조직을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써 화려하고 다양한 문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물의 꽃' 이라고 불리는 문양중심의 직물지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임
 - 특히 소재개발, 디자인, 제품기획이 매우 다양하고 패턴개발은 많은 노하우와 패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서 일반직물보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분야이며 또한 개발도상국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산업임
- 적용분야에 있어 용도면을 볼 때, 넥타이, 헤드타이와 의류용 실크직물 등 부가가치가 높은 패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소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커튼, 시트커버, 테이블 시트 등의 인테리어용이나 자동차 시트커버 등의 수송용 소재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

- 특히, 인테리어용의 경우 이태리, 벨기에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경우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가 매우 큰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음
- 성공적인 자카드산업 파워브랜드 개발은 지역내 관광컨벤션, 텍스타일 테크노마트 및 무역서비스 지원사업 연계로 전통문화를 활용한 업그레이드된 공주 유구의 이미지 조성 및 패키지형 산업구조의 확장으로 2차산업 제조업과 3차산업 서비스업의 연계형 신산업 창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유구 자카드직물산업의 육성 강화의 필요성으로는 반세기이상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지역특화 산업이며, 자카드직물단지 는 유구지역을 중심으로 130여개 자카드직물 업체에 1,000여명의 관계자가 종사하고 있는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산업으로서 입지상계수가 10.55에 달하는 산업임을 알 수 있음
 - 유구 자카드직물산업은 충청남도 5대 전략산업 및 정부 주요 정책산업과 연관관계를 갖는 미래전략산업이며 섬유산업, 패션산업, 관광산업, 홈텍스타일 및 인테리어산업, 스포츠·레저산업, 친환경산업, 석유·정밀·화학산업, 자동차산업, IT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관관계를 갖는 전략산업임
- 유구 자카드직물산업은 충청남도 성장동력산업으로의 전략산업과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지연산업으로 '충청남도 지역혁신 발전 5개년계획' ('04~'08년)에 의해 현재 육성중이고 지역적 연고를 가진 특화된 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으로 차별화된 지연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임
 - 현재 충남 지연산업의 대다수가 1차산업에 치중되어 있으나, 공주의 유구자카드섬유산업은 2차산업으로서 이미 지역내 산업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며 또한 유구의 청정환경에 적합한 산업기술을 특화하고, 궁극적으로는 3차 지식기반 산업으로 구조전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체노력이 진행중임
 - 이러한 구조적인 자체노력에 행복도시 광역개발권으로서 공주의 역사문화도시기능과 연계한 자카드 관련 인적, 물적, 기술 및 정보의 결절지로 육성하면 복합적 지역기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도약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2. 유구소도읍 가꾸기사업의 일환인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행자부 지원사업으로서 유구지역은 직물업체의 밀집지역으로 각기 업체별로 고유 아이템을 통한 직물생산을 있어 주로 OEM방식으로서 경제성이 뒤처지며 상품화를 위해 외지지역을 활용하여 생산비용이 증가하는데 직물단지가 조성될 경우 자카드 직물업체의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가 확산되고, 현존 주거지역과의 업체이전으로 인한 환경개선과 특히, 봉제라인의 구축으로 인한 신규고용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며, 운송비가 절감되고 상품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음

- 단 지 명 : 유구 자카드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85-1번지 일원
- 필 지 수 : 16블록
- 평균 분양 예정가 : 69,601원/m²(필지별 차등 적용)
- 공고기간 : '10. 6. 22. ~ '10. 7. 7. (15일간)
- 입주대상 업종

구분	면적(m ²)	업체수
합 계	53,996.9	16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32,216.0	1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제외)	21,780.9	6

3. 유구소도읍 가꾸기사업의 일환인 자카드마케팅센터 운영

- 행자부의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해 '04년부터 지원받아 건립한 사업일환으로' 09. 9. 23. 개관됨. 유구읍의 전통산업인 직물산업의 부흥을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자카드직물단지(일반산업단지)내 생산되는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함
- 유구지역내 자카드 비즈니스센터 역할을 하고 자카드직물에 대한 이해증진 및 우수성, 차별성 홍보, 자카드 교육의 일부기능을 담당하며, 자카드의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의 관광산업화가 가능하고, 자카드직물의 수출 행정지원과 세계 일류제품 생산 및 파워브랜드를 구축함에 있음
- 현재 자카드상품의 우수성을 전시 홍보·판매하고 있고, 오는 가을부터는 충청남도 관광 정규투어 코스로 지정되어 국내 관광객은 물론 대백제전 축제기간 중 외국관광객의 방문이 쇄도를 이룰 것으로 보임
- 센터의 내부는 상설판매관, 주택관, 인테리어관, 홍보관, 체험학습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한산모시 홍보관과 닥섬유 홍보관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공유로 향후 세계적인 자카드 집산지의 메카가 될 수 있음
- 전시품목으로 가정생활에 필요한 침장류, 소품, 커튼, 벽지 등 인테리어직물에 관한 모든 상품이 기능별, 소재별로 분류되어 전시되어 있고, 판매관내에는 넥타이, 손수건, 유아복, 스카프, 방석, 모자, 가방 등 다양한 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산업용분야의 특수직물도 용도에 맞춰 전시되어 있음
- '11년부터는 신상품 설명회와 신제품 홍보, 패션쇼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 유구지역 고유의 자카드 기술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서 해외 바이어를 새로이 발굴하여 자카드 산업 제2의 르네상스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함



마케팅센터 전경



상품판매관



주택관



인테리어전시관



한산모시전시관



한복전시관



다섬유전시관



홍보관

12 | 전북 섬유패션산업 동향

한국니트산업연구원

□ 전일염공, 오가닉 코튼 원스톱 제품화 공정체계 구축을 통해 친환경 패션 마켓 트렌드 주도

- '08년부터 섬유스트림간 협력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였던 전일염공은 '오가닉 코튼 및 천연 복합소재를 이용한 인체친화형 기능성 섬유제품 개발' 사업을 완료하면서 친환경 섬유소재인 오가닉 코튼 및 코튼/텐셀, 코튼/헴프 등의 스트림별 공정 및 인증시스템을 확립하고, 유아동 내의 및 웰빙형 이너웨어 제품 개발 등으로 친환경 섬유시장 개척 주도
- 특히 오가닉 코튼 원료로 제조되는 원사, 사가공, 편직, 염색가공, 봉제, 마케팅간 스트림 공정별로 오가닉 코튼 국제 인증기관인 킷트롤 유니온사로부터 생산인증 확보를 통해 제품화 공정체계 구축
- (주)신한방은 오가닉 코튼 안 및 천연섬유 혼방사의 합연사 제조 및 인증시스템 확립
- 용정실업은 오가닉 코튼 및 인피섬유 혼방/복합사를 이용한 유소아용, 이너웨어용 니트원단 개발
- 해피상사는 OE 및 GOTS 인증을 위한 재단봉제 시스템 확립
- 화남섬유공업(주)은 오가닉 코튼 및 천연 혼방/복합사 원단을 이용한 이너웨어용 니트 제품 개발

□ 한지사(絲)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개발 모색

- 양말 및 이너웨어에서 스포츠웨어까지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한지사는 전주 한지의 상품화를 주도하고 있는 전주시가 전주패션협회 디자이너 15명과 함께 '한지사 혼수용품 개발' 사업을 추진, 웰빙 천연소재인 한지사로 웨딩드레스와 양복, 침구세트, 예단, 핸드백 등 30여 가지의 혼수용품 개발하여 이르면 이달말께 선보일 예정
- 한지사 전문 제품 제조업체인 (주)오성과 전주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지사 태권도복 4가지를 개발하여 외국 진출 모색
- 한지사를 처음 개발한 쌍용방직(주)은 한지사를 이용한 차량용 시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을 전후해 자동차와 항공기 시트를 선보일 예정

□ 전주 탄소산업 각계에서 '뜨거운 관심'

- 효성과 함께 탄소섬유 개발에 나서고 있는 탄소기계기술원에서는 현재 준 양산 수준인 연산 150t 규모의 탄소섬유가 생산되고 있으며, 내년초에는 양산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 한국경제,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EBN 등의 경제지 기자들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관계자 등 10여명이 우리나라 탄소섬유 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전주기계탄소기술원과 (주)테크 등 견학

□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의 신사옥인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기공식을 6/30에 가졌으며, '12. 8월 입주를 목표로 국·지방비 총 598억원을 들여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에 34만3,000㎡ 규모 신축
- 연구조직은 탄소계 복합소재 및 응용부품 개발 등의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형태로 운영, 탄소섬유 원천소재 제조와 초경합금 등 다양한 복합소재 원천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목표로 자동차와 항공산업, 방위산업 등 전북의 성장동력과 연계해 세계 최고수준의 응용연구에 매진할 예정

2010. 7
섬유패션산업 동향

발행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 소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44-31
섬유센터 16층
전 화 02-528-4025
발행인 노희찬

비매품